HANURI TOUR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우수대리점
한우리 여행사
전 세계 항공권 최저가 도매개별 맞춤 투어 전문
213.388.4141 1-855-388-4141 1001 S.Vermont Ave. #209, Los Angeles, CA 90006

기독일보

삼성통운 SAMSUNG SHIPPING
귀국이사·타주이사·시내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T: (877)580-2424

Tel. 213-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성령께서 이끄시는 화해의 신문 WWW.CHDAILY.COM THURSDAY, January 19, 2017 Vol. 562

‘온전한 교회’로 세워 나가리라

나성한미교회 6대 담임목사 위임 및 장로 안수식



나성한미교회가 담임목사의 위임식과 장로 이취임식을 함께 열었다.

나성한미교회 6대 담임목사 위임예배가 15일 오후 본당에서 열렸다. 시무장로 3명도 임직했다.

1부 담임목사 위임예배는 송병주 목사(선한청지기교회) 인도로 송광률 목사(선한청지기교회 은퇴목사) 대표기도, 이 교회 성가대 찬양, 송병주 목사의 ‘소명과 선물’(민수기 18:1~8) 제목의 말씀 선포 순으로 진행됐다.

송병주 목사는 말씀 선포를 통해 “목회자와 교인들이 서로 연합하며 선물이 되어지는, 서로가 서로를 살려주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라”고 당부했다.

이어 송 목사는 위임 서약 및 선언이 있은 후 신용환 담임목사가 나성한미교회 제 6대 목회자로 위임됐음을 선포했다.

옥수석 목사(부산거제교회)의 영상 축사와 백정우 목사(남가주동신교회)의 권면도 이어졌다.

신용환 목사는 위임사에서 “세상에 완전(perfectness)한 교회는 없지만, 온전(integrity)한 교회는 있다”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하고 온전한 교회로 세워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신용환 담임목사의 인도로 진행된 장로 안수 및 이취임식에서는 김경무 장로, 문지현 장로, 정병한 장로가 임직, 이영재 장로, 임근만 장로가 이임했다.

축사를 전한 김지성 목사(글로발선교교회)는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의미는 구별함과 동시에 큰 축복이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두려움으로 세워가라”고 말했다. 김인철 목사(오렌지가나안교회)는 “목사와 장로는 부부의 관계이다. 서로의 부족함을 보완하며, 한 마음으로 아름답게 협력해 온전한 교회를 세워가라”고 권면했다.

광고를 전한 김영호 장로는 “오늘 담임목사님의 위임은 담임목사님이 없는 111일을 눈물로 기도해준 성도들의 귀한 협력과 하나됨의 결실이다. 나성한미교회를 위해 기도해준 모든 성도분들과 주의 동역자들께 감사하다”고 전했다. 모든 예배는 신용환 담임목사의 축도로 끝났다.

신용환 담임목사는 고신대 기독교교육학과, 고려신학대학원 M.Div.를 졸업하고 풀러신학교 목회학 박사 과정을 수료하고 서울성민교회, 대구동일교회, 부산거제교회에서 사역했다.

한편 나성한미교회는 신년 특별새벽기도 및 부흥회를 오는 16일(월)~21일(토) 새벽 6시, 20일(금)~22일(주일) 저녁 6시 30분에 각각 갖는다. 이인규 기자

“전략적 선교 마인드가 필요한 시대”

제4차 산업혁명…향후 선교의 기본 조건으로 작용할 것

‘4차 산업혁명’으로 말미암아 선교지에도 큰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16일 한국선교연구원(원장 문상철 교수, KriM)이 ‘한국선교 동향 2017’을 통해 “이 혁명적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전략적 선교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KriM은 한국 선교운동의 동향에 대해 매년 조사를 해서 국내외에 알리고 있다. 2016년 12월 말 기준으로 한국 선교의 동향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그 주요 발견사항을 보고하는 가운데, KriM은 특별히 “향후 선교의 중요한 환경과 조건을 형성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의 선교에 대한 영향과 그에 대한 대처 방안에 대해서 선교사들의 인식을 파악하는 작업을 했다”고 전했다.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과 로봇기술, 생명과학 등이 주도하는 차세대 산업혁명을 의미하는 말로, 실재와 가상이 통합되어 사물을 자동·지능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가상적 물리 시스템의 구축이 구현되는 산업상의 변화를 이야기한다. 그러나 KriM은 “한국 선교사들은 대체로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의 개념에 대해 설문지 상의 설명을 접한 후, 다수의 선교사들은 4차 산업혁명이 선교에 폭넓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했다(78.8%). 선교에 대한 영향이 극히 일부에 그칠 것이라는 응답자는 4.6%에 불과했다. 또 선교 연구 분야와 훈련 사역 등에 있어서 4차 산업혁명의 영향이 클 것이라는 점도 지적됐으며, 현장 사역에 있어서는 4차 산업혁명의 영향이 아주 크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약간 우세했지만, 반대 의견도 상당했다.

KriM은 “선교사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고, 반대 의견은 15.1%에 불과했다”면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깊을수록 선교 사역에 대한 그 영향이 클 것이라고 전망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했다.

→8면에 계속

“美법원, 기독교인에 ‘우호적’ 판결”

트럼프 정부의 미국…옳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어

“공공장소에서 성경을 큰 소리로 읽는 것은 범죄가 아니다”

최근 미국 연방 법원은 캘리포니아 정부 기관 앞에서 성경책을 읽다가 체포된 기독교인 남성에 대해 우호적인 판결을 내렸다고 CBN 뉴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마크 맥키(Mark Mackey)는 지난 2011년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인 대런 메이어 경찰에게 체포된 후, 형사 고발을 당했다. 캘리포니아 주 차량국 앞의 공공장소에서 큰 소리로 성경을 읽었다는 혐의다.

제9 항소법원은 하급법원의 판결을 뒤집고 맥키에게 유리한 쪽으로 약식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사건에 대한 경찰의 입장이 비디오 및 오디오 영상물에 의해 거짓임이 밝혀졌다. 자료 화면에는 어떤 대치도 없었고, 맥키가 줄을 서 있는 사람들로부터 조금 떨어진 곳에서 큰 소리로 성경을 읽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고 밝혔다.

맥키는 이같은 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면서 “정의가 끝내 승리했다”면서 “미국이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흥분된다”고 전했다.

그의 변호를 맡았던 로버트 타일러 변호사는 “이번 결정은 사법체계에 대한 내 소망을 새롭게 했다”고 말했다.

전세계 선교지 대학 향할 제2의 언더우드를 찾아라

PAUA 제10차 대회 2018년 2월 남가주에서 개최

제2의 언더우드를 꿈꾸는 한인들이 내년 2월 한자리에 모인다. 아시아와 아프리카, 남미 지역에 있는 대학교들의 연합체인 PAUA(Pan Asia Africa & America Universities Association, 범아시아·아프리카·아메리카대학협의회)가 소속 대학에서 사역할 교육 선교사를 동원하는 대회를 남가주에서 개최한다.

한국에 처음 왔던 외국인 선교사들이 가장 주력했던 분야 중 하나가 교육이었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연세대학교, 아펜젤러 선교사는 배재중고등학교와 배재대학교, 스크랜튼 선교사는 이화여자대학교를 세웠다.

선교사들은 교육이야말로 실질적으로 한 영혼을 구원할 뿐 아니라 나라의 미래와 운명까지 바꿔놓을 수 있는 길이라 믿었다.

최근 PAUA의 관계자들이 이곳 LA를 방문해 2018년 2월 1일부터 4일까지 풀러신학교와 함께 개최할 제10차 PAUA 대회를 소개했다.

→2면에 계속

“예수영맥을 따라 광야로 나선 순례자들의”
기독교 대한감리회 빈들교회
담임목사 : 김 용 조
■ 예배시간 안내
주일예배 오전 11:00
관상기도회(금) 오후 8:00
32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Tel: (818)518-0033

그린카피어
Green M. Wild IMAGE SYSTEMS
Office and Industry Technology Solutions
Lease/Rent/Sale/Repair/Toner/Maintenance
칼라복사/칼라프린트/칼라스캔/팩스/네트워크
교회및 자선,비영리단체는 특별한 혜택
greenmwild@gmail.com
TEL: 213 705 7778
bizhub KONICA MINOLTA

Since 1999
www.e-nca.org
Irvine
La Canada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갖춘
명문사립 NCA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 아이비리그 및 UC 계열대학에 진학하고, 타 사립학교 대비 월등히 경제적인 교육비로 소수정예의 교육이 가능한 NCA에서 가르치십시오.
· 졸업생 평균 GPA 4.34 및 SAT 평균 2,048점 기록(전미주 평균 1,500점)
· 지난17년간 전 졸업생이 UC 계열과 유수의 명문대학에 진학
· LA에서 유일하게 국제학사(IB) 및 AP 프로그램 동시 실행
· 학생과 교사 비율 평균 10:1로 소수정예의 질 높은 교육 환경
· 새 학기 보충수업 위주의 썸머스쿨 운영(필드트립 등 다양한 액티비티 제공)
· 편리한 교내 애프터스쿨 운영(월 $75~$150 정도의 경제적인 비용)
· 미주 최초 한인이 설립한 비영리 기독교 사립학교로서 영성 함양
LA학부모님, 아직도 학군 따라 이사가십니까?
오픈하우스
1월 26(목) 7:00PM
NCA 사립 초중고등학교
NEW COVENANT ACADEMY
3119 W. 6th Street, Los Angeles, CA 90020
명문대 입학은 킨더부터 시작됩니다!
K-9th 모집
New Covenant Academy
Now Available On
무료 앱 다운로드
입학 문의 (213)487-5437
NCA 킨더가든 모집 명문대 입학은 킨더부터 시작됩니다!



나성한인교회가 창립 41주년을 기념하며 증경장로 추대식과 임직식을 열었다.

나성한인교회 창립41주년 맞이해 임직식

나성한인교회(담임 신동철 목사)가 15일 창립 41주년을 맞이해 기념예배와 함께 장로 은퇴 및 증경장로 추대식, 장로 안수집사 권사 임직식을 함께 했다.

이날 권일윤 장로가 은퇴하고 증경장로로 추대됐으며 김대선, 임종훈 씨가 장로로, 우종백, 정성엽 씨가 안수집사로, 김의선, 엄경희, 임미혜, 최승혜 씨가 권사로 임직했다.

신동철 담임목사는 '나그네된 교회(레25:23)'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신 목사는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증인들이 모여 예배하는 장소이다. 우리는 이 땅에 잠시 머무는 임시 거주자이다. 이 땅에 잠시 머무는 동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본향을 꿈꾸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성한인교회는 모든 성도가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복음의 내용을 분명히 제시할 수 있는 생각하는 신앙인, 성경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묵상하는 신앙인, 깨달은 말씀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며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하는 신앙인, 말씀을 일상에 적용, 실천하는 행동하는 신앙인을 추구한다.

*문의: 323-221-9531

*주소: 2241 N. Eastern Ave. LA, CA 90032

쉘비 권 기자

나성열린문교회

이승희 목사 초청 신년 축복성회 개최

나성열린문교회(담임 박헌성 목사)가 13일~15일까지 대구반야월교회 이승희 목사를 초청해 신년축복성회를 개최했다. 반야월교회는 복음의 열정과 능력을 체험하는 예배 공동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교제 공동체, 예수의 제자를 양육하여 세우는 훈련 공동체, 지역 사회를 섬김으로 영향을 끼치는 선교 공동체, 10,000명의 예배자와 1,000명의 리더를 세워 민족과 열방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고자 하는 비전을 갖고 있다.

이승희 목사는 이번 축복성회에서 "희망으로," "창대함으로," "신앙을 고백하라," "신앙을 훈련하라," "신앙을 확장하라," "축복으로"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다.



이승희 목사가 나성열린문교회에서 신년축복성회를 인도했다.

이 목사는 "새해가 되면 올해는 지나온 해보다 좋아지기를 기대한다. 하지만 사람 사는 것은 다 똑같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황에서도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님만이 희망이었다.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고 사모하며, 주님을 위한 삶을 결단하라"고 권면했다. 또 "예배의 사람, 은혜의 사람, 헌신의 사람이 되어 주님께 매달리고 신앙의 연륜이나 직분을 주님 앞에서 깨뜨리고 하나님을 목말라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내려주신다. 2017년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 넘치는 나성열린문교회 성도가 되라"고 축복했다.

*문의: 213-383-2600

*주소: 3281 W. 6th st. LA, CA 90020

쉘비 권 기자

남가주한인목사회

2017년 신년하례회 개최

남가주한인목사회가 신년하례회를 윌셔크리스천교회에서 14일 오후 열었다. 이날 올 한해 남가주 교계를 이끌어갈 목사회 회장단, 임원, 분과위원들에게 임명장이 수여됐고 새 사업들이 발표됐다.

회장 김영구 목사는 "일을 안 하는 것이 문제이지, 우리가 일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결과를 책임져 주실 것"이라며 모든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목사회는 올해 다양한 사업을 계획 중이다. 먼저 오는 30일 LA 단체장 초청 조찬기도회에 참여한다. 이어 대한민국의 안정과 평화를 위한 기도회를 열며 2월에는 미주 탈북민들의 한국 방문을 위한 자선음악회를 한다.



남가주한인목사회가 신년하례회를 열고 올 한해 펼칠 사역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오는 20일에는 美 대통령 취임식에 맞춰, 그의 반이민정책에 반대하며 오전 10시에 LA 다운타운(올림픽+브로드웨이)에서 열리는 행진에 참여한다. 김준형 기자



PAUA 대회 준비를 위해 미국을 방문한 관계자들이 12일 LA 한인타운 내의 한 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왼쪽부터 이승주 기획전략본부장, 문성주 대외협력본부장, 대전 카이스트교회 장갑덕 목사, 미주 섬김이 윤상운 목사, 강성택 사무총장.

전세계 선교지 대학 향할 제2의 언더우드를 찾아라

PAUA 제10차 대회 2018년 2월 남가주에서 개최

[1면으로부터 계속]현재 PAUA에는 17개 학교가 소속돼 있다. 모두 한국인 선교사들이 설립한 선교 목적의 대학들이다.

선교지 정부로부터 정식 인가를 받은 학교일 뿐 아니라 일부 학교는 현지에서도 손꼽히는 명문대학으로 성장해 있다. 캄보디아국립기술대학교(2005년 설립·2,860명 재학), 몽골의 후레정보통신대학교(2002년 설립·1,719명 재학)와 국제울란바타르대학교(1995년 설립·3,521명 재학), 우간다의 쿠미대학교(1999년 설립·1,050명 재학), 볼리비아의 우세볼대학교(1991년 설립·3,500명 재학)가 대표적이다.

PAUA는 이 학교들을 네트워킹하면서 교류와 연합을 도모하고 각종 교육 자원들을 회원 학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돕는다. 그리고 기독교 대학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우수한 학문성을 키워갈 수 있도록 연구와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 매년 1차례 학교의 대표자들, 교수들이 모여 교육 선교의 방향과 미래, 전략을 토론하는 대회를 열고 있다.

그동안의 대회들은 대부분 선교지 대학을 중심으로 열렸지만, 내년 제10차 대회는 회원 대학이 없는 미국에서 연다. 교육 선교사들을 동원하는 데에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선교지 대학 대부분에서 영어로 강의할 수 있는 교수 자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미주 한인들은 이런 부분에서 이미 준비된 사람들이다. PAUA는 특히 한인 전문인들이나 시니어를 효율적 선교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또 선교에 비전을 둔 1.5세나 2세들도 이번 행사를 통해 교육 선교에 동원할 수 있다고 본다.

전공 교수로 지원하려면 그 분야 석사나 박사 학위가 있어야 하지만, 영어 강사나 한국어 강사는 학사 학위만 있어도 된다. 대학의 행정 직원, 시설전문가, 상담교사, 의무교사, IT 전문가와 도서관 담당자, 대학 부설 초중고등학교 교사 등 다양한 분야의 일꾼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선교의 소명만 확실하다면, 누구라도 교육 선교에 투신할 수 있고 PAUA가 가장 적합한 대학으로 갈 수 있도록 주선해 준다. 다만 사역할 곳이 열악한 선교지이다 보니 스스로 선교 후원자를 모집해야 한다. 학교에서는 숙소를 제공하지만, 사례비를 주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PAUA 관계자들은 지난 11일 풀러신학교 관계자들과 만나 이번 대회를 논의했고 오는 3월에 조직위원회를 발족할 예정이다. 그리고 10월부터 참가자를 모집한다. 대회 전이라도 PAUA로 연락하면 각 대학과 교육 선교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카이스트교회에서 시무하는 장갑덕 목사는 "대회를 통해 미주 지역 한인교회들이 교육 선교에 더욱 깊은 관심을 갖고 헌신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문의) www.paua.kr

paua.america@gmail.com

김준형 기자

www.saseducation.weebly.com
SAS 인가컨설팅,Inc
직업학교, 어학원, 종교특례대학, 일반대학, 데이케어/프리스쿨, I-20신청, 연방인가, 온라인교육사이트
대표 Paul Kim, Ph. D
summitus37@gmail.com
Tel : (213)531-7215, (909)993-3028
2975 Wilshire Blvd. Suite B01, Los Angeles, CA 90010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날자'

허영란 목사

"11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12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13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가서 2:11~13)"



너도 나도 우리 모두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다.

허영란 목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감당해야 할 사명은 바로 땅끝에 있는 '너'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임을 심어주는 것이다.

'그'가 구원받고 사랑스런 하나님의 '애가'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허 목사는 오늘도 그 한 영혼을 위해 두려움과 떨림으로 두 손 높여 '십자가 사랑'을 노래 하고 있다.

"너도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딸이란다"

그녀는 휑한 벽을 마주한 채 어깨를 들썩이고 있었다. 그리곤 끝내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목놓아 엉엉 울었다. 아니, 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토해내듯 짐승처럼 처절하게 울부 짖고 있었다. 거의 온종일 그렇게 한다고 했다. 무엇이 그녀를 그토록 비통케 하는 것일까? 허 목사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다. 발이 떨어지질 않았다. 그래서 가까이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다.

"우리 남편 좀 찾아 주세요"

그녀는 이미 제 정신이 아니었다. 알고 보니 남편한테 버림받은 충격으로 이 땅에서 살 소망을 이미 잃어버리고 만 것이다. 그런데 이 땅에서의 살 소망을 잃어버린 이가 어디 이 여인뿐이랴. 그녀 옆에는 알콜 중독으로, 마약 중독으로, 가정파탄으로, 또는 이런 저런 형태의 수많은 이유로 이미 이 땅에서의 살 '소망'을 잃어버린 '그녀'가, 또 '그'가 수도 없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불쌍한 이들을 살려낼 방법은 없는 것일까? 왜 하나님께서는 허 목사로 하여금 저들을 품게 하시는 것일까?

허영란이란 이름 석 자를, 아는 사람은 알지만 모르는 사람은 모른다. 그도 그럴 것이 인기 절정의 순간에 미련없이 정상을 비껴 내려왔기 때문이다.

어쩌면 이름보다는 '날개'를 부른 가수로 더 유명할지도 모르겠다.

'날개'란 곡은 'KBS 가요톱10'이라는 프로그램에서 1983년 6월 첫째 주 ~ 7월 셋째 주에 걸쳐 5주 연속 1위(2주 결방)를 기록하며 국민곡으로 자리잡은 이래 지금까지 애창되고 있는 곡이기 때문이다.

그 당시 성령의 감동으로 '날개'를 작사·작곡한 조은파 선생도 지금은 선교사가 되어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고 있다.

자살을 결심했던 어느 파산자의 눈물을 닦아주고 다시 일어서게 한 노래, 너무도 암담한 현실 속에서 낙담하고 있을 때 손 내밀며 끌내는 선교사의 길을 걷게 해준 노래, 삶에 지쳐 피폐해진 영혼 가눌길 없을 때 "어서 일어나 ~ 다시 날아라"라며 새 힘을 준 노래.

그 '날개' 이야기는 30년이 훌쩍 지난 지금, 목사로 거듭난 허영란 자신의 삶의 이야기가 되어 영혼 구원 사명을 위해 다시 무대에 오르게 하고 있다.

이제는 화려한 조명을 받는 세상 무대가 아닌, 허 목사가 만난 그 주님께로 인도할 수만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되고 그가 살아날 수만 있다면 하는 간절함을 품고 오로지 '그 한사람'을 위한 무대에 오르고 있다.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께서 기뻐 영광받으신다면, 그뿐이다. 허 목사는 자신도 하나님의 '애가'가 되고 싶은 마음 뿐이기 때문이다.

세상 속 가수 허영란은 가창력이 아주 뛰어난 가수였다. 일본 도시바 EMI 소속으로 일본에 한류바람의 씨앗을 처음 뿌린 사람 중의 하나다. 그런 그가 그곳에서 예수님의 눈에 붙잡히고 만 것이다. 나도 모르게 옮겨진 발걸음은 어느 교회(물론 그곳이 교회인줄은 나중에 알았다고 한다) 성전으로 향했고 그날 주님께서는 허 목사를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는 첫 단추를 끼우셨다.

허 목사는 한 달 이상을 울고 다녔다. 어찌 그리 회개할 것이 많았었는지 모른다고 한다. 하나님 믿지 않는 것이 '죄'인지도 그때 깨달았다. 뼛속 깊이 저절로 깨달아졌다고 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그는 현재의 생활터전이 된 이곳 LA에서 신학공부를 마치게 됐다. 그후, 여섯 번씩이나 받아들이지 못하고 주저하다가 결국 일곱 번째의 권유에 하나님 뜻으로 받아들이고 목사 안수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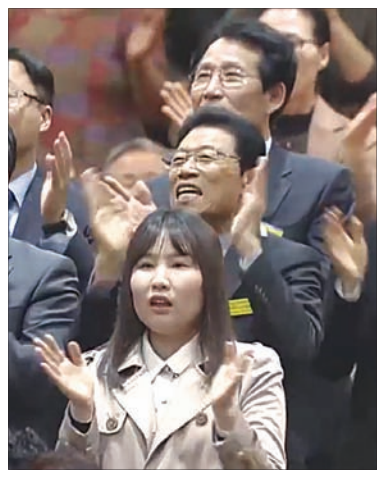
교회를 개척하여 섬기기도 했지만 지금은 LA한인타운 내 남가주 빛과소금교회(담임 이태근 목사)에서 선교목사로 섬기고 있다.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로 시작된 하나님의 사람 허영란 목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가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를 '그 한사람'의 그들의 이야기가 되게 하기 위하여 믿음의 무대 위로 다시 돌아온 허영란 목사.

목젖이 항상 촉촉히 젖어 있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사슴이 시냇가를 찾듯, 그렇게 갈급한 심령들에게 구원의 생명 찬송을 끝없이 들려줄 하나님의 사람, 그가 바로 허영란 목사다.

이영인 기자





지난해 10월 말 허영란 목사가 연세중앙교회 성전을 가득 메운 성도들과 함께 찬양으로 은혜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던 모습. 이 교회 담임 윤석전 목사(오른쪽)가 성도들 속에서 '성령이 오셨네'를 합창하며 활짝 웃고 있다.







2017년 GMS 미주 선교사 훈련(OMTC) 4기 모집

"건강한 선교를 위해 훈련과 정식 파송은 필수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 하시더라" (눅4:43~44)

한국 최대 선교 단체인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측) 총회세계선교회(Global Mission Society)
미주해외선교사훈련원(OMTC)에서 2017년 장기 선교사 훈련 정규과정을 진행합니다.
이 과정을 수료하면 GMS 선교사 파송 자격을 부여받고 장기 선교사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목사 선교사와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 실버 선교사로의 꿈을 가진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인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2017년 GMS 미주 OMTC선교사 4기 훈련을 계획하였습니다.

1. **훈련 기간** : 2017년 2월 13일(월)~3월 3일(금) 3주간
2. **훈련 장소** : 컴미션(Come Mission) 1520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15 전화번호 1-213-383-5499
3. **강 사** : 박무용 OMTC 이사장, 이상돈 이사, 민찬기 이사, 정영기 이사, 문상무 이사, 김성길 목사, 이병구 선교사, 박헌성 목사, 박기호 선교사, 이재환 선교사, 김정한 선교사, 김수봉 선교사, 이승일 선교사, 박시경 선교사, 김영록 선교사, 박선기 선교사, 김명환 선교사, 김기동 목사, 김현완 교수, 김에녹 교수, 이상훈 교수, 이광길 교수, 이근 목사, 조나단 강 박사, 및 전문 강사, 현장 선교사
4. **훈 련 비** : 1인당 $1,300불 (숙식 포함)
5. **등록마감** : 2월 4일까지
6. **훈련비 납부 방법** : 2월 4일(토)까지 납부 바람. 체크로 하실 때 Pay to GMSA로 하시면 됩니다.
체크 보내실 주소는 319 W. Lambert Rd #16., Brea, CA 92821 Mr. Byounggu Lee
7. **훈련 문의** : 1-714-614-3666 E-mail: igmc21@gmail.com
8. **커리큘럼** : GMS 정신과 정체성, 세계선교 동향, 21C선교 전략, 건강한 선교, 선교 역사, 선교와 제자도, 타문화권 이해, 미션 플랜팅, 선교사 생활과 사역, 선교사 스트레스 관리, 선교사 후원 개발, 출구전략, 팀사역 원리, 비즈니스 선교, 전문인 선교, 선교사 가정생활, 선교신학 기초, 선교사와 설교 개발, 선교와 전도, 선교와 복음, 선교적 교회 등등
9. **훈련 대상** :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 목사 선교사, 현장 선교사
10. **개강예배 및 수료예배** - GMS 미주 OMTC 훈련원
11. **GMS 선교사 임명식** - GMS 미주 OMTC 이사회
12. **2월 13일(월) 오후 2시**까지 훈련 장소로 도착하셔야 합니다.


이사장 김찬곤 목사


OMTC 이사장 박무용 목사


미주 OMTC 훈련원장 이병구 선교사

GMS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세계선교회
GLOBAL MISSION SOCIETY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KOREA



미주 한인의 날 감사 예배 참석자들이 행사 후 기념촬영를 하고 있다.

미주 한인의 날 12주년 기념 감사예배

'미주 한인의 날' 12주년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예배가 14일 한미장로교회에서 있었다.

이날 예배는 최순길 목사(남가주교협 회장)가 사회를 맡았고 김종용 목사(남가주교협 수석부회장)가 대표기도, 주재임 목사(남가주교협 부회장)가 성경봉독을 했다.

이운영 목사(남가주목사회 전 회장)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란 제목으로 설교했고 허만진 목사(남가주교협 부회장)가 헌금기도, 박세헌 목사(남가주목사회 부회장)가 광고, 김재중 목사(남가주목사회 감사)가 축도하는 등 남가주교협과 남가주목사회 임원들이 순서를 나눠 맡았다.

예배 후 기념식에서는 이병만 회장(미주한인재단 LA), 권영신 이사장(대한인국민회)이 각각 환영사와 축사를 전했고 엄규서 목사(남가주목사회 전 회장)가 미주한인재단 자문위원, 송병주 목사(선한청지기교회)가 미주 한인의 날 기념행사 부대회장 자격으로 권면을 전했다. 이 외에도 백지영 목사(남가주목사회 전 회장), 샘 신 목사(남가주목사회 수석부회장)가 각각 기도와 축사를 맡고 소프라노 지경, 이경호 목사(한아름합창단 지휘자) 등이 특별 연주를 했다.

미주 한인의 날은 2004년 1월 12일 캘리포니아 주의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의된 바 있으며 2005년에는 연방의회도 상하원에서 이를 결의했다.

김준형 기자

재산보존 및 상속전략 세미나

푸르덴셜에서는 은퇴계획 및 재산보존과 상속전략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 세미나에서는 새해에 변경된 세법 및 재정계획에 도움이 될 내용들과 트럼프 정부에서 개정이 예상되는 상속법 및 소득세법을 소개할 예정이며 은퇴와 관련된 은퇴자금관리, 롱텀케어 및 메디케어 비용 등 종합적인 재정계획에 대해 자세히 설명할 계획이다. 강사는 지난 30년 이상 재정계획에 종사했고 10년 이상 라디오코리아, 라디오서울 등 방송에서 재정계획 칼럼을 진행 하던 전창백 매니저가 맡게된다.



강사 전창백 매니저.

*참가신청: 310-755-9837
화이낸셜 어드바이져 보나 유
* OC지역: 1월 24일 저녁 7시
로스카요테스칸트리클럽, 부엔나팍
(8888 Country Club Dr. Buena Park, CA 90621)
*LA 지역: 2월 7일 저녁 7시
JJ그랜드호텔
(620 S. Harvard Bl. LA, CA 90005

〈선교부흥을 회복하라〉

이상훈 목사의 열방 이야기 2



터키, 가지엔텝 마을 순교자 묘소를 찾아서

그의 묘비명에는 '1862년 죽었다' 라고 씌어 있었다. 어떻게? 왜? 아무런 설명이 없다. 26세의 청년이다. 미국 프린스턴 태생이고, 선교사로 터키를 왔다.

그 당시 터키는 오스만제국의 끝자락에 있었다. 무슬림들의 기독교인 탄압이 극심할 때다. 역사적으로 보면 무슬림정권은 기한을 정하고 기독교인들에게 조상 대대로 살던 땅을 떠나라고 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난민되어 세계 각국으로 퍼졌다. 그러나 소수의 기독교인들은 믿음도 조상의 땅도 지키고 싶었다. 고난과 박해를 무릎쓰고 그들은 그 땅을 지켰다. 그런 그들을 두고 떠날 수 없어 이 묘비의 주인들이 그들과 함께 했을 것이다.

19세기에 미국의 청년들은 세계선교의 꿈을 꾸며 터키로 아프리카로 남미로 아시아로 그리고 한국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선교의 디아스포라가 되었다.

황혼 무렵 가지엔텝 도시의 한 복판에 우뚝 솟아 있는 칼레(옛날 높은 성벽터를 일컬음)에 올랐다. 사방에 수없이 보이는 모스코에서 때마침 아잔이 울렸다. 그들이 기도하는 시간이었다. 그러나 칼레에 있는 어느 누구도 아잔에 맞춰 기도하는 사람은 볼 수 없었다. 젊은이들은 무엇이 그리 좋은지 자기들끼리 키득키득 할 뿐이다. 혼자 벤치에 앉아 있는 노인도 아잔소리에 미동도 없었다.

필자는 한 구석에 홀로앉아 있는 청년에게 다가갔다. 한국인이라고 하는 말에 그는 호기심 섞인 눈으로 내게 다가왔다.

띄엄띄엄 손짓, 눈짓으로 대화하며 가지고 간 스마트폰에 저장된 가족 사진들을 소개하며 한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런 후, 그 형제가 묻고 싶었던 것을 마침내 물어왔다. 한국인이 왜 좋은 관광지가 많은데 이런 시골마을에 들어 왔냐고, 자기가 좋은 관광지 알려 주겠다고 했다.

나는 그에게 나를 소개했다. 아! 그 시간은 주님이 기다리신 시간. 나는 그 시간을 위하여 지난 수개월간 기도하고 선교비를 마련하며 준비하였다. "형제여!" 나는그리스도인이라고. 나는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기 위해 왔다고 했다. 그는 예수를 알고 있었다. 예수는 훌륭한 이맘(무슬림의 종교 지도자) 중 한분이고 자기들도 예수의 가르침을 따른다고 했다. 그는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는다 했다. 그는 자기는 알라를 믿는다고 했다. 나는 그에게 예수를 한번 알아보고 공부해 보지 않겠냐고 물었다. 그는 한국인이 자기 동네에 온 정성을 생각했는지 탐탁치 않아 하는 눈치였으나 어떻게 공부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필자는 그에게 그들의 언어로 된 신약선경을 건네 주며 읽어 보라고 했다. 반드시 인생 문제에 대한 답을 얻게 될 것이고. 예수님에 대해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신약을 권했다. 무슬림들은 거저 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선물이라 생각하는 것을 받으면 자기도 꼭 무엇이든 답례를 하려고 한다. 그는 신약을 받고는 자기 팔목에 매여 있던 문양이 있는 실로 짠 팔찌를 풀러 내 팔목에 매어 주었다. 필자는 그와 그렇게 대화하다가 내가 형제를 위해 기도하고 싶은 데 해도 괜찮겠냐고 물었다.

그는 흔쾌히 허락했다. 그의 손을 잡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렸다. "사랑의 하나님! 이 영혼에게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알라에게 묶여 있지만 그의 손에 쥐어 준 이 성경으로 인해 그가 예수님을 알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깨닫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영혼이 불쌍하여 나는 눈물로 기도했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 주실 것임을 믿었다. 필자는 이렇게 무슬림 땅에서 선교의 발자국을 찍었다. 〈계속〉



재미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남가주 총동문회가 신년하례회를 가졌다.

재미 총신 신대원 남가주 총동문회 신년하례회

재미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남가주 총동문회가 11일 영생교회(김혜성 목사)에서 신년하례회를 했다. 신년하례회는 표세흥 목사의 사회로 시작해 정진기 목사 기도, 이동규 목사 성경봉독, 윤태근 목사 설교, 정고영 목사 축사, 황은영 목사 권면, 오위영 목사 헌금 특송, 이규만 목사 광고, 김혜성 목사 축도 순으로 진행됐다.



LA 한국교육원에서 제6기 미주문학아카데미가 열렸다.

미주문학아카데미 제6기 성황리에 개최

강사 김수복 시인

단국대학교 국제문예창작센터 주관으로 LA한국교육원에서 10일~19일까지 제6기 미주문학아카데미가 열렸다.

이번 아카데미에서는 〈시 창작의 실제〉라는 주제 아래 단국대 김수복 교수가 강의했다. 참가자들은 사랑, 사람, 관계, 광장, 저녁, 현실과 역사적 상상력, 생태학적 상상력, 공간적 상상력, 시간적 상상력, 미학적 상상력, 신화적 상상력 등 다양한 관점에서 시를 창작하며 자신 안에 있는 재능을 발견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수복 교수는 1975년 시 "겨울 숲에서"로 한국 문학신인상을 받으며 등단했다. 시집 지리산 타령, 낮에 나온 반달, 새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나무, 모든 길들은 노래를 부른다, 사라진 폭포, 우물의 눈동자, 달을 따라 걷다, 외박, 하늘 우체국 등을 저술했고 시 외에도 정신의 부드러운 힘(우리 시의 표정과 상징), 별의 노래, 상징의 숲, 한국문학 공간과 문화 콘텐츠 등을 저술했다. 편운 문학상, 서정시학 작품상, 풀꽃 문학상 등을 수상했고, 한국문예창작학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한국 시인협회 부회장으로 활동 중이다.

쉘비 권 기자

기독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효, 박기호, 방지각, 김중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김혜성
이 사 장 : 오병익 **발 행 인** : 이인규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 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la@gmail.com
Pay to the Order of : Christianity Daily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19년 전통계승 • 11,000 sq. ft.의 넓고 럭셔리한 공간 • 7개의 전문 디비젼 • 최신장비 보유 • 고객맞춤 시술로 높은 만족도

무이자 페이먼트 가능
마이크로 모낭단위 이식 (FUE)
3D모발이식 $1.40 모발당 ~~$5~~

촘촘하고 자연스러운 PIN 이식방식



헤어라인, 정수리, 눈썹, 속눈썹 이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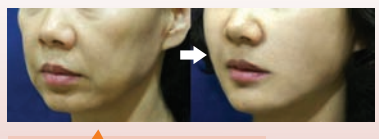
높은 생착률 · 흉터가 보이지 않음 · 짧은 회복기간 · 1회 5000모 이상 이식가능
0.60mm 가는 PIN에 머리카락을 장착하여 PIN과 함께 펀치 이식하여 조직 손상률이 적으며 촘촘히 이식되므로 재수술이 필요없어 원래의 풍성한 모발을 만들어줍니다. 또한 이식 시 상처를 덜 만들기 때문에 조직이 많이 붓고 두피가 딱딱해지는 것을 최소화시켜줍니다.

3개월만에 풍성해집니다!
발모클리닉

발모치료 10회(3개월) 12개월 무이자 페이먼트 $125/월
+ FREE 올게닉 발모샴푸 2병
FREE 발모 S토닉 2병
FREE 닥터 수 처방전 (3개월치)

무이자 페이먼트 가능
번거로운 지방이식, 쉽게 없어지는 볼륨주사 대신!
콜라겐의 써앗을 주입하자! UP SEE

울퉁불퉁 들어간 곳엔 볼륨을! 쪼글쪼글한 피부는 탱탱하게!



UP SEE (1 bottle) ~~1000~~ $600

UP SEE (1 bottle) + 파워 실 리프팅 1회 (턱선, 팔자, 이마 중 가장 심하게 처진 1 파트) ~~2000~~ $1100

파워 실 리프팅 1회 (턱선, 팔자, 이마 중 가장 심하게 처진 1 파트) ~~1000~~ $500

리프팅 스페셜 1월 31일까지!
지금 나에게 필요한 시술은?
피부탄력? 잔주름? 반짝반짝 동안피부?

수술없이 만드는 V라인과 처진 피부 탄력 UP!
1 떨마지 1200샷(얼굴 전체+목) PRP 자가혈 1회 ~~2200~~ $1200
2 실리프팅 (턱선, 팔자, 이마 중 가장 심하게 처진 1 파트) PRP 자가혈 또는 백옥주사 1회 ~~2000~~ $1000
3 매직 리프팅(얼굴 전체) 물광주사 1회 ~~1500~~ $800

$500 ~~1200~~ 1월 31일까지!
3D 리프팅+모공+잡티+주름
3D 리프팅 (얼굴+눈가+목) 2회
반도체 S Laser (모공축소) 2회
유년 줄기세포 (피부재생) 2회
ETP 영양집중 케어 2회
피부 스케일링 2회

LINE 라인성형외과 213.383.3322
3424 Wilshire Blvd. #1100, LA, CA 90010 (Big 5 빌딩 내)
빌딩 Convert (주상복합으로 변경) 공사로 인해 이전했습니다.
카카오톡 상담서비스 아이디: LINEPS

과부의 헌금에 대한 칭찬의 의미

누가복음 21:1~4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 재 효

누가복음 21:1~4

1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연보궤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2 또 어떤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3 가라사대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4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의 있는 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본문은 예수님이 성전에서 헌금하는 것을 보시며 하신 말씀입니다.

부자들은 자기의 부한 것을 자랑하기 위해 돈 주머니를 왼손으로 추켜들고 오른손을 주머니 안에 넣고 휘휘 저으면서 돈이 많이 있음을 과시하고 그 중에 얼마를 집어 연보 궤에 넣습니다.

그런데 그 틈새에서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이 금화도 은전도 아닌 동전, 구리로 만든 단위가 가장 낮은 돈 두 렙돈을 넣었습니다.

이 과부는 자신이 가진 것의 전부를 넣은 것입니다. 그것도 참으로 죄송한 마음으로 아주 다소곳하게 얼굴 들기도 어려워 민망해하는 모습을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과부가 얼마 되지는 않지만 아주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습에서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이 과부는 가치 단위적으로 생각하면 어느 누구보다도 보잘 것 없고 작은 것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헌금 가치의 기준이 금액의 단위에 있지 않음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4절에서 그 과부가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과부의 과거가 어떤 생활을 해왔고 지금은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단지 이 가난한 과부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말씀하신 것을 보아 이 과부는 지금까지 살아오게 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믿음이 있었고, 이제부터는 아무것도 없지만 굶어 죽을지에 대한 걱정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책임져주실 것이라는 믿어지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과부는 남은 생활비 모두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선물을 주고 받을 때도 그 선물이 얼마나 비싸고 싼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선물 속에 관심과 사랑이 얼마나 스며들어 있는지가 중요한 것처럼 그것이 가장 소중한 가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물질 기준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지극정성의 가치 기준이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돈 많은 사람이 그 많은 것 중에 일부를 드린 것과, 가진 것은 별로 없지만 자기 가진 것의 전부를 드린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 과부의 믿음의 정성이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가장 많이 드린 것으로 평가되신 것입니다.

미국 텍사스 델라스 지역으로 선교를 갔을 때 초대받아 간 곳에서 하루를 묵으면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나를 초대한 목사님은 하루에 2천불 이상을 버신다고 합니다. 한 달에 20일정도 일을 하면 4만 불을 버는 셈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돈으로 약 5천만원정도 되는 돈입니다. 이분들이 지금은 연세가 많아서 60세가 넘으셨습니다.

이 목사님 내외가 한 35년 전에 미국으로 이민을 왔는데 두 분이서 이백 불을 가지고 가셨답니다. 그런데 이 내외는 이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었답니다. 이분들이 그때는 집사님들이었습니다. 어디 잘만한 처소도 구하지 못해서 그곳 예배당 긴 의자에서 잠을 자고 교회 화장실에서 씻으며 기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인에게 감동이 오기를 본문 말씀인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이 떠올랐습니다. '과연 그 과부는 모든 것을 드리고 굶어 죽었을까? 아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적극적으로 책임지시고 좋은 조건으로 살게 해주신 것이 아니겠는가!'는 생각이 들면서 이 말씀에 기대감을 가졌습니다.

이들이 미국에 와서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그 부인이 남편에게 하나님 앞에 드릴 헌금을 의논했더니 남편은 부인에게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가난한 과부가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드려서 그 사람의 생활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설교가 생각이 났다면서 가진 돈 이백 불을 전부 감사헌금으로 드리자고 했습니다. 그 당시 이백 불은 적은 돈은 아니었습니다. 이분들이 각자의 이름으로 백 불씩 헌금을 하니 교회에서는 많은 돈을 가지고 이민 온 사람들로 알고 교회 장로님들이 이분들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리고 어디 사냐고 물으니 교회에서 산다고 대답합니다. 그러니 믿음이 대단해서 아버지 집을 떠날 줄 모르는 사람들로 마음대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으로 심방을 한 번 가보고 싶다고 하니 "저희들은 집이 없습니다. 이민올 때 가지고 온 것도 없어서 아버지 집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했더니 금세 인상이 일그러지는 것을 보았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더 이상 교회에 있으면 안될 것 같은 표정을 보고는 다음 날부터 열심히 일자리를 찾아 다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돌아다녀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또 밤을 맞이합니다. 결국 갈 곳이 없어 다시 그 교회로 갔는데 다행히 문이 잠겨있지 않아 하나님께 정말 감사를 드렸답니다. 하룻밤 쉴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놓으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며 감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일거리를 찾아 돌아다니다가 한 신발 수리하는 가게에 들어가서 일을 배워보고 싶다고 하며 서투른 영어로 이야기를 나누다보니 가게주인이 장로님이셨습니다. 사정이 딱해서 함께 일하자고 하며 한 달에 돈 칠백 불을 주었는데 그 당시 방세는 천 이백 불은 줘야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교회에서 기거할 생각을 했습니다. 부인은 부인대로 한국인 식당에 가서 일해주고 사백 불 정도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집사님은 믿음이 좋아서 항상 일을 하면서 찬양을 했고 일에 열심을 다하니 4년이 지난 뒤에는 일류 기술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주인이 다른 곳으로 돈을 벌러 가야하니 이 가게를 맡아 운영하고 한 달에 얼마씩만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이 일을 겸손하고 성실하게 수행했던지 한 달에 4일정도만 일하면 보내줄 돈은 다 마련되고 나머지는 모두 그 집사님의 수입이 되었습니다. 이제 직원들도 둘 정도로 가게가 번창해지자 부인이 신학교를 가야할 때가 되었다고 해서 신학을 하고 목사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한 교회를 목회하는 것에 뜻을 두지 않고 세계선교를 위해 선교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모은 재물들을 사용하면서 남미 여러 나라, 멕시코나 미개한 나라에 열심히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를 쓰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한인 축구회를 만들고 그 운영자금으로 매년 11만불을 보내고 있습니다.

현재 살고있는 집은 선교하시는 목사님들을 모시기 위해서 구입한 집이라고 하며 하나님은 온전한 믿음을 기대하시더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분들이 돈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이라고 가지고 돈에 연연해하는 모습을 보일 때면 하나님도 인색해지셨다고 합니다. 돈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포기하고 하나님 은혜만을 믿고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면서 모두 드렸더니 지금과 같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더라는 얘기도 덧붙이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물질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과소비와 사치를 일삼으며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에는 인색한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잘 사용해야 물질을 맡기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신임하실 것이고 또 그 사람에 대한 기대가 새로워지는 만큼 더 많은 물질의 밑천을 맡겨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저 육신이 원하는 대로 세상 적으로 물질을 사용한다면 결국 하나님의 기대는 멀어지고 말 것이기에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라 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살고 죽는 것도 하나님 뜻에 달린 것입니다. 그분의 마음에 감동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행동하는 정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조건으로 살리시는 은혜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하나님께 인색하고 자신에게 후하게 살다가 점점 더 가난해지는 어리석음에 머물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두 렙돈으로 가장 많이 드린 정성이라는 예수님의 평가가 여러분 마음속에 깊은 교훈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께 칭찬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 국 선 교 설 교			
TV 한국방송 설교		한국 신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북 기독 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 외 선 교 설 교					
TV 미국방송 설교			라디오 미국방송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1310 기쁜소리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금요일 오후 2시30분
미국 신문 설교			FM91.5(SCA) AM1650 LA 미주기독교방송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기독일보	5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세금무료상담

확실히
줄여드립니다!!

이정운 CPA

- 개인 및 사업체에 맞는 절세
-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서비스 및 고객 데이타베이스 구축
- IRS,FTB,SBOE,EDD 세금문제해결
- 저소득층 세금환불(EITC)
- ITIN(개인납세자번호)신청 및 공증
- FAFSA,쇼설연금,해외자산신고 상담
- 정확한 서비스와 저렴한 수수료

Tel (213)387-2004

www.cyleecpa.com

3130 Wilshire Blvd. Ste 405, Los Angeles, CA 90010

Tax season 연장근무!!
(평일 9 am – 8 pm,토요일10 am- 5 pm)
(무료주차!! Free Parking!!)

크리스천 자녀를 위한 골프 교실

저렴한 비용으로 골프와 성경공부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

*픽/업/가/능

P.G.A Player Tour	(12~14살 1~2명 모집)
P.G.A Player Tour	(8~11살 1~2명 모집)

▪ Email : mrjacob601@hotmail.com
▪ 문의 : 최 제이콥 프로 T(310) 598-0746



Golf Studio 각종 골프클럽 최저가 판매
(Olympic 갤러리아몰 322호)

LA 예닮교회 부설 다중지능 교육원

성격과 적성에 맞는 나 자신의 미래 직업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사람의 지문(Finger Print)은 태아의 뇌 발달 상태를 그대로 반영하여 형성됩니다.
지문(Finger Print)을 통해 선천적이고 유전적인 개인의 진로(전공)와 직업, 적성을 8가지의 다중지능(Multiple Intellgence)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집단상담(Group Counseling) 개인상담(Personal Counseling) 진로 직업적성검사(Mi test) 문의 (323) 559-0070 상담학 박사과정

LA예닮교회 1134 S.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20

*전도사님을 찾습니다.

(최 제이콥 목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New Bridge University Golf Management
The Reformed University 대학원
Dea Han Theological Seminary U.S.A 신학박사
LA 예닮교회 담임목사

GBC 미주복음방송 사장 모집 공고

지난 25년간 오직 예수님만 전하며, 주 7일 24시간 복음이 선포되는 미주 최대의 한인 기독교 라디오 방송사GBC 미주복음방송 사장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 하오니, 전문성과 역량을 지니신 많은 분들의 응모를 바랍니다.

1. **공모직위 및 인원** : 사장 / 1명
2. **임기** : 선임일로부터 3년
3. **주요 직무수행 조건**
   - 회사를 대표하고, 이사회의 결의를 집행하며, 회사의 경영 전반을 통할 할 수 있는 분
   - 방송 및 미디어 사역에 전문성을 갖추고 급변하는 선교환경에 효율적인 경영체계를 유지 할 수 있는 분
4. **지원자격**
   - 크리스챤으로 도덕과 신앙을 통한 공적 업무 수행에 문제가 없는 분
   - 최고 경영자로서의 자질과 능력(리더쉽, 전문성, 위기관리 등)을 갖추신 분
   - 방송선교에 대한 비전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경영마인드와 윤리관을 갖추신 분
5. **지원서류 및 접수**
   - 접수 기간 : 2017. 1.1. – 2017. 2. 10
   - 접수 방법 : 우편메일(PO Box 6857, Buena Park, CA 90622)
   - 접수처 : 미주복음방송 이사회 사장 청빙위원회 앞
   - 제출서류 *지원서(사진부착) 1부
     *자기소개 및 신앙고백서 1부
     *최종학력 증명서 1부
     *운영계획서 및 비전
     *추천사유가 기재된 추천서 2부
6. **지원서류 접수방법**
   - 소정의 서류를 작성하시어, 우편으로 메일하시면 됩니다.
7. **심사방법 및 후보자 결정**
   - 1차 서류 심사(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 2차 면접 심사
   - 최종후보자 결정 및 통지
8.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기재된 내용이 허위 판명될 경우 및 도덕적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선임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 문의사항은 미주복음방송 714-484-1190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GBC 미주복음방송 AM1190 igbc.net

●다문화 칼럼

예수님의 가르침과 다문화 목회



송 재 호 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예수님께서는 성경에서 다문화 목회사역을 위해서 어떤 가르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가?

첫째 우리가 아는 마태복음 25장 38~40절에서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은 가르침을 소개하고 있다.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뵈었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는 이 본문에서 중요한 단어 하나를 묵상해 보아야 하는데 그 단어는 바로 "지극히 작은 자"라는 단어이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예수님에게 한 것이라는 말씀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지극히 작은 자"란 표현은 마태복음 10:42; 18:6, 10, 14에서 '소자 중의 하나'라는 표현과 마태복음 18:5에서의 '어린아이 하나'라는 표현과 동일한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게 된다.

이 표현은 매우 축소 지향적인 묘사라고 말할 수 있는데 특히 이 단어는 "작은 자"를 "지극히"라는 단어를 추가 사용하여 최소 단위의 상태에 있는 즉 "가장 작은 자"를 표현하는 단어라고 해석해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지극히 작은 자"란 바로 이 땅에 살아가지만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을 가리킨다.

그렇다. 이 세상에는 소외된 자들이 많이 살아가고 있다. 어딜 가나 세상에서 소외받고 천대를 받으며 사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와 같이 세상에서 천대와 멸시를 당하며 살아가는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셨고 친구가 되어 주셨다. 그래서 당시 종교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죄인들의 친구"라고 조롱하며 부르기도 하였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 "지극히 작은 자"로써 세상에서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방인들도 예수님 때문에 위로를 받을 수 있었고 마음에 평안과 용기를 얻으며 살 수 있었다는 것이다.

또 우리는 누가복음 10장 33~37절에서 소개하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도 다문화 목회사역의 중요성과 필요에 관하여 배울 수 있게 된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혹자들에게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 비유에서 등장하는 사마리아라인이란 고대 근동의 이스라엘인, 혹은 히브리인들로부터 기원한 민족이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고대 이스라엘 왕국이 분열되기 전까지 한 나라에서 살았던 동족들이었다. 그러나 연합 이스라엘 왕국은 원전 931년 무렵 분열되어 북이스라엘 왕국은 아시리아에 점령되었고, 남유다 왕국은 좀 더 뒤에 신바빌로니아 왕국에게 점령되어 바벨론에 끌려가게 된 것이다.

그리고 역사는 흘러 남 유다인들은 아케메네스 왕조시대에 페르시아에 의해 해방되어서 팔레스타인 지방으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게 되면서 자기네들이 고대 이스라엘의 정통 후손이며 팔레스타인에 그대로 남아있던 북 이스라엘인들은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르면서 그들을 이민족처럼 차별하기 시작한 것이다.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시작은 율법교사의 질문으로 시작된다. 율법 교사는 특별히 자기의 정당함을 드러내고 싶어 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하기를 "그러면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하고 질문을 던진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율법 교사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려주신 후 다시 "누가 강도를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냐?"고 다시 질문을 던지셨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과 방향이 무엇이었는지를 배우게 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신들과 다른 피부색, 문화, 그리고 언어와 출생지까지도 다른 이웃을 위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같이 돌봐야 함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에서의 가르침이었던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삶의 방향과 목표가 이 땅에 소외받고 고통당하는 이웃인 이방인까지를 포함해야 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 주신 다문화 목회의 중요성인 것이다.

지금 우리 주위에도 세상에서 소외당하고 상처와 아픔으로 외롭게 살아가는 자들이 많다. 그런데 우리는 자칭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아무런 관심도 사랑도 없는 무관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다. 누가 먼저 그들을 돌보며 사랑해야 할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해 보자. 그리고 말씀대로 예수님의 사랑과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기도해 보자. 그와 같은 우리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닐까?

벌써 2017년이 시작되어 1월의 중반을 넘어섰다. 모두가 새로운 결심과 소망을 가지고 한해를 시작하고 있는 지금의 시점에서 다시 한번 마음속에 예수님의 말씀과 도전으로 활기찬 새해를 시작해 보자.

끝까지 읽었어야 하는 책



김 성 민 목사
팰리세이드교회

목회를 하다 보니 많아지는 것 중에 하나가 책이다. 그래서 가끔 그 책들 중에 필요치 않은 것들을 골라 버리려고 한 적이 많이 있었다. 하지만 늘 실패했던 이유는 언젠가 그 책도 필요할 때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지난 주 책 정리를 시도 했다. 그런데 또다시 실패하고 말았다. 언젠가는 필요한 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 읽다가 그만 둔 책이 많았다.

그 중에 영어를 직역하면 "목사의 삶"이라는 책이 있었다. 이것 역시 영락없이 앞부분을 읽다가 그만둔 흔적이 있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그날 그 책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지난번이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는 가운데 표시한 곳에서부터 읽기 시작했는데 "목사의 자기 관리"라는 부분이 나왔다. 그곳을 보니 나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이야기들이 많았다.

예를 들면 "목사는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닌 스스로를 위하여 성경말씀을 묵상해야 한다." "목사는 기도해야 한다. 그래야 전문가 기질에 빠지지 않는다." 등. 그날 나는 왜 그 책을 이전에는 끝까지 읽지 않았는지 궁금했다. 이렇게 나에게 필요한 이야기들이 가득한데 왜?

아마 그 때는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그 책은 지난 수 년 동안 나의 책상 뒤에 늘 꽂혀 있었고 내가 보든 안 보든 나에게 "목사의 삶"에 대하여 말하고 싶었을 것이다. 늦게나마 그 책을 읽었음에 감사 했지만 그 때 읽지 못한 것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성경을 주셨다. 그리고 그 말씀을 떠나지 말고 묵상하며 살라고 하신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성경말씀을 읽으며, 묵상하고,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평생에 한번, 그것도 수년에 걸쳐서 여기저기를 따로 읽어서 전체의 이야기를 다 알지 못하며 성경을 일독 했다고 하는 것은 아닌가?

눈앞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며 살아갈 때에 후회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 말씀 안에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방법과 생명의 길에 대한 비밀이 아름답게 적혀 있기 때문이다.

복음으로 시작하는 인생



정 우 성 목사
남가주광염교회

성경을 읽으면서 갑자기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성경의 한 단어가 번쩍 거리는데 큰 글씨로 내 눈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그것은 다름아닌 "시작"이라는 단어였다. 나도 다시 시작할수 있을까? 처음의 마음으로 다시 목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막 1:1)

시작이란 단어를 듣고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할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은 희망을 말한다. 우리가 하루에 10분 이상 성경을 읽겠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더욱 알고 싶다는 희망이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시작한다는 것은 새 마음이요, 목표가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시작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하지 않던 일, 그것도 새로 계획하고 그동안 쉽게 하던 일을 바꿔서 새 일을 하려고 하면 이미 굳어진 우리 몸과 마음이 변화를 싫어하는 반응이 튀어나오는 게 정상이다.

필자는 2017년도에는 더욱 큰 희망이 생겼다. 복음과 함께 시작한다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한다면 우리 인생은 반드시 새로워 질것이다.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한다.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

참된 복음으로 시작하는 인생은 회개로부터 출발한다.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신다. 복음으로 시작하는 인생은 회개 함으로 죄용서함 받고 용서해 주는 인생으로 예수와 함께 사는 인생이다. 그런데 그렇게 살고 싶어도 우리 마음대로 되질 않는다. 우리의 결심 우리의 의지로 사는 것이 아니다. 오직 위로부터 주는 은혜로 사는데 하늘로부터 은혜를 받으려면 기도해야 성령충만을 받을 수 있다.

성령의 인도함 받는 인생이 얼마나 복된가? 복음으로 시작하는 인생은 말씀과 기도로 사는 인생이다.

작은 실천이지만 우리 가정에서는 2017년도에는 가족이 매일 모여 돌아가면서 성경을 8장씩 읽기로 결심했다. 새해 첫 날부터 함께 예배드리고 돌아가면서 성경을 5절씩 읽었다. 오랜만에 가족이 모였기에 마가복음 1장부터 16장까지 전장을 함께 읽었다. 자녀들은 영어로, 어른들은 한글로 읽으면서 성령께서 성경읽는 1시간 이상 동안 모든 식구들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다. 읽고나서 돌아가면서 감동을 나누었는데, 자녀들의 순수한 고백들에 도전이 되고 은혜가 더해졌다. 시작은 창세기였는데 벌써 신명기를 읽고 있다.

금년에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생명의 소식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께 집중하고 싶다.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고 싶다. 2017년도에는 우리 모두 복음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인생으로 하늘의 큰 복을 받고 그 복을 나누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하자.

JESUS HEALING MINISTRY

제 22차 / 목회자, 평신도를 위한

JHM 영성 컨퍼런스

간증사례

유ㅇㅇ사모/ LA
저는 두 번의 직장암 수술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암이 재발되어 두 번째 수술할 때는 직장의 암 조직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채 봉합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 3개월에 한 번씩 MRI, CT Scan, 피검사 등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 캘빈 목사님의 기도를 받은 바로 그 날, 잠을 자는데 어떤 큰 손이 나의 직장과 대장을 밖으로 꺼내어 물로 깨끗히 씻어주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 후 7년이 지난 지금에는 전문의로부터 나는 더 이상 암환자가 아니라는 판정을 받았고, 더 이상 매년의 정기 검진이 필요 없다고 의사로부터 확진을 받았습니다. 이 치유 받음을 통하여 저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었고, 그분이 역사하시면 어떤 질병도 치유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죽을 수 밖에 없었던 나에게 새로운 삶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에 대한 보답으로 저는 평생 JHM 사역을 도와서 나와 같이 불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고 싶습니다.

이미선 자매/ 사랑의 교회. 서울 서초구
오랜 믿음생활에도 저의 신앙은 겉돌았으며 게다가 결혼 9년차 임에도 아이가 없었고, 시험관 아기를 세 번째 시도해봤지만 실패했고, 남편과의 사이도 멀어져서 저는 이것이 바른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혼을 고려하는 단계까지 이르렀습니다. 그 때 여 캘빈 목사님에게 상담과 기도를 받은 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한 차원 달라졌습니다. 특별히 방언통변을 통해 제 영의 간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서 그때부터 기도생활에 열심을 내게 되었고, 그런 와중에 시험관 아기를 4번째로 다시 시도하고픈 마음이 들어 실행에 옮긴 결과 지금은 임신 19주째의 건강한 딸 아이가 제 속에서 자라고 있답니다. 캘빈 목사님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정ㅇㅇ집사/ 대학교회. 서울
저는 원인 모를 어지럼병으로 몇 년 동안 누워서만 살아야 했었습니다. 그 때는 영적 분별력이 없어서 오랜 시간 해답을 찾지 못하고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 내 안에 무당의 악한 영으로부터 짓눌려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고, 축사를 통해 악한 영이 쫓겨가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나름대로 열심있는 신앙 생활 했음에도 영적 분별력이 없었던 저에게 목사님은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게 해주셨고, 이제는 말씀을 누리는 삶이 무엇인지 안개가 걷히는 것같이 선명해지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 캘빈 목사님의 성령 사역은 시대적으로 필요한 사역임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김ㅇㅇ목사/ LA 사역자
저는 지난 5년여 동안 이주 심한 변비로 인해 배는 임신 10개월처럼 나와 있었고 늘 고통을 받아왔었는데 지난 11월 19일에 캘빈 여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 완전 치유를 받게 되어 지금은 이전과 같은 변비로 인한 고통없이 지내고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캘빈 여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번 영성 컨퍼런스에서도 크신 역사와 치유 그리고 기적들을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임동언 집사/ 서울. 4차~16차 집회 참석자
저는 본래 무신론자로서 살다가 예상치 못했던 사업적으로 심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그로 인해 몸까지 아파서 자살까지 결심했었습니다. 그런데 지인의 소개로 목사님을 만나 상담하고 JHM 영성 집회를 꾸준히 참석한 결과 지금은 건강과 일 그리고 제정문제까지도 회복되었으며, 나의 일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늘 감사하며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LA서 열리는 영성 집회에 꼭 오셔서 하나님을 만나세요. 여 캘빈 목사님이 잘 도와드릴 겁니다.

데니얼 아빠/ 집사. 서울
50대 중반의 사업가로서 저는 사업상 여러 번의 쓴 잔을 마셨습니다. 모태 신앙인이었지만 믿음 생활은 항상 겉돌았고 사업은 내 머리와 힘으로만 했기에 실패에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그러던 중 목사님을 만나 성경을 배우게 되었고 또한 저를 위한 예언사역을 통해 신앙적으로 고쳐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면서부터 제 삶은 변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성공해서 주의 일을 하겠다고 기도해 오던 삶의 우선 순위가 어느덧 바뀌어 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전에는 그토록 노력했으나 되지 않았던 일들이 술술 풀리면서 지금은 사업이 미국, 중국, 동남아로 진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문을 열고 계십니다. 이제 저의 목표는 JHM의 곡간을 채워서 작은 교회 목회자와 세계의 선교사들을 영적으로 돕고자하는 목사님의 비젼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쓰임 받는 것이며, 저처럼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자기 힘으로만 사업하며 고생하는 사업가들을 이 사역으로 이끌고 싶습니다. 저를 제정적으로 회복시키신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드보라 김 사모/ LA 사역자
오랫동안 가까이서 지켜본 여 캘빈 목사님은 많은 은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항상 겸손히 주님께만 영광 돌리고 언제나 말씀으로 바로 가르치시고 양육하시는 귀한 사역자입니다. 이전에 제가 많이 지쳐 힘든 가운데 있을 때 목사님이 기도해 주셨는데 그 때 5살 아이로 보이는 제 어린 시절의 모습과 그 옆에 예수님이 저를 사랑으로 돌보고 계시는 모습을 제가 직접 보게 되었어요. 제 어린 시절은 온 가정이 불교에 심취해 있던 때였음에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위로와 새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목사님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권세능 목사/ 주천성교회 담임. 경기도 평택
올해 8월 여 캘빈 목사님 초청 영성 부흥회는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 가졌던 그 어느 집회보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집회였습니다. 특별히 방언을 오랫동안 사모했으나 받지 못했던 모든 성도들에게서 방언이 터지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으며, 또한 세밀하고 정확한 방언통변을 통해서 성도 각자를 위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목사님의 집회는 영적 침체기에 빠져서 목회를 중단하려 했던 저를 변화시켜 새로운 사역자로 거듭나는 축복이 되었습니다. 저는 영성 사역자가 여 캘빈 목사처럼 지적이면서도 성경 말씀에 깊이가 있고 은사를 성경적으로 균형있게 잘 활용하는 분을 거의 보지 못하였습니다. 목사님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영성 사역자로 귀하게 쓰시는 산실한 종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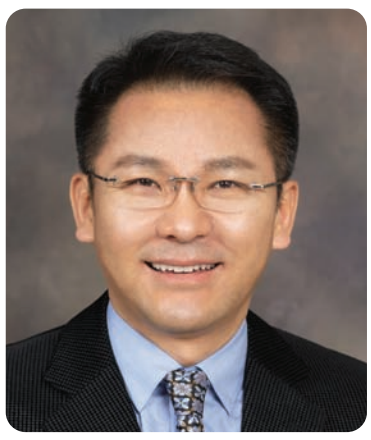
이상목 목사/ 이어리한인교회 담임목사
저희 교회에서의 두 번에 걸친 부흥집회를 통해 성도들의 오랜 영적인 문제가 해결 받고 신앙과 삶이 변화되는 것을 보면서 여 캘빈 목사님은 말씀과 영성을 균형있게 겸비한 사역자임을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영적 세계에 관한 것들 즉 방언통변, 예언, 축사 사역은 아주 탁월합니다. 참석하는 사람에게는 누구든지 많은 유익이 있을 것이므로 JHM 영성 컨퍼런스에 참석하실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영적
정신적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자유함'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사야 11:1-2]

주제: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균형잡힌 파워 크리스챤으로의 회복"



주강사 여 캘빈 목사

-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소속
- 내적치유 사역자 (신유, 예언, 축사, 방언, 방언통변)
- 영성집회 인도자 (미국, 한국, 중국, 유럽, 서남아 등)
- Kunsan National Univ.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BA
- Miju Chongshin Theological Seminary M. Div
- Criswell Theological Seminary MA 2yrs. <Dallas, TX>
- Fuller Theological Seminary MA 2yrs.
- Grace Theological Seminary MA <Indiana, OH>
- Grace Theological Seminary Dr. of Missiology Candidate <Indiana, OH>

할렐루야!!

제 22차 'JHM 영성 컨퍼런스'를 미국에서 열게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행해 온 지난 21차에 걸친 'JHM'을 통하여 많은 참석자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기름부으심을 통해 은혜의 회복과 은사를 경험한 후 변화되어 각자의 지역 교회에서 신실한 일군으로 헌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지나 온 JH Ministry를 통해 말기 위암 환자 뿐만 아니라 각종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던 환자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육간에 강건하여서 주어진 사명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더 이상 옛 자아, 죄 그리고 질병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주님의 임재를 통해 우리를 치유하시고 자유케 하실 제 22차 'JHM 영성 컨퍼런스'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3박 4일 동안 본 집회에서는 성경적인 신유, 예언, 축사, 방언, 방언통변 등의 은사들을 정확히 다루게 될 것입니다. 고통 중의 성도에게는 자유함을, 갈급한 영혼에게는 생수와 같은 성령의 기름부으심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2017년 새해에 JHM 영성 컨퍼런스를 통해 여러분의 영성과 믿음을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십시오.

- 컨퍼런스 일시 : 2017년 1월 22일 (주일, 4 pm) ~ 1월 25일 (수, 4 pm) 까지 3일간
- 장소 : 빅베어 Pine Crest Christian Conference Center
- 주소 : 1140 Pine Crest Road. Twin Peaks, CA 92391
- 접수 마감일 : 2017년 1월 17일
- 참가비 : 250불
- 준비물 : 성경, 세면도구

JHM 초청대상

- 육체적인 질병과 씨름하며 고통중에 있는 분
- 죄인 줄 알면서도 자기의지로 절제할 수 없는 각종 중독(마약, 술, 도박, 음란) 등으로 고민하는 분
- 복잡한 문제에 얽혀 삶의 방향과 목적을 상실한 채 방황하는 분
- 영적 세계에 눈은 열렸지만(예언, 영분별 등) 분간이 잘 되지않아 짓눌려 있거나 궁금한 분
- 영적 은사를 사모하는 분
- 방언을 하지만 확신이 없거나 방언은사를 사모하는 분
- 진정한 영적싸움과 그 승리의 원리를 알기 원하는 분
- 경제적 어려움으로부터 성경적인 돌파구를 찾기 원하는 분
- 많은 은혜를 체험하면서도 자아문제와 신앙성장 문제에 걸려 고민하는 분

JESUS HEALING MINISTRY | 주소: P.O. Box 74069, Los Angeles, CA 90004 문의전화: 213.806.9990



예장합동 부총회장 전계현 목사가 12일 한국이슬람대책협의회 창립예배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

한국교회가 그 실재 깨닫도록 '예방주사' 사역할 것

한국이슬람대책협의회 출범…종합적 대응방안 모색

국내 이슬람 이주노동자와 유학생들의 급증과 더불어 결혼 이주, 개종, 이슬람 편향 정책 등으로 한국의 이슬람 인구 비율이 계속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이슬람 확장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한국이슬람대책협의회(대표 고정양 목사)가 출범했다.

한국이슬람대책협의회는 먼저 한국교회가 이슬람교의 원리와 역사를 성경적으로 분석, 평가할 수 있도록 하루 4시간 집중 교육을 하는 '이슬람교육지도자 및 평신도 양성 인텐시브 코스'를 운영하면서 동시에 세미나와 문서 출판 사역 등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교육 사역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 협의회는 "상당수 이슬람 개종자가 기독교 출신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교회부터 이슬람의 실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예방주사' 사역을 하기 위해서다"고 설명했다.

협의회는 "지금은 대한민국이 이슬람화되는 것을 염려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반드시 모든 교회가 동참하여 교회 내에서부터 이슬람 교육이 체계적으로 시행되어야만 하는 중요한 시점"이라며 "교역자들과 성도들이 나서서 한마음으로 이슬람에 대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100주년기념관 제1세미나실에서는 한국이슬람대책협의회 창립대회와 국내 이슬람교 확장에 따른 종합적인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강의가 진행됐다.

이지희 기자

"전략적 선교 마인드가 필요한 시대"

제4차 산업혁명…향후 선교의 기본 조건으로 작용할 것


문상철 박사
한국선교연구원장

[1면으로부터 계속] 더불어 "선교사들은 4차 산업혁명의 첨단 기술들을 선교 사역에 적극 활용해서 사역을 혁신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면서 "결론적으로 4차 산업혁명은 향후 선교의 기본적인 조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KriM은 154명의 선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였으며, "그들은 선교단체 책임자(33.3%), 현장 선교사(29.3%) 등을 비롯한 다양한 영역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선교사들로, 성별, 연령, 교단, 단체 유형 등에 있어서 대표성이 있는 표본을 구성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선교 주요통계에 대해서, KriM은 선교사 숫자 21,075명, 선교단체 숫자 156단체, 선교 대상국 숫자 153개국이란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2016년 선교사 403명이 증가한 숫자로, KriM은 "2012년 2.19%, 2013년 1.45%, 2014년 1.90%, 2015년 1.01%로 떨어진 이후, 2016년 1.94%로 다시 상당폭 증가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KriM은 "성장의 주된 요인으로는 다수의 신학교 졸업생 배출로 인해 잉여 인적 자원이 해외로 진출하는 긍정적 요인이 한국 교회의 쇠퇴, 재정 감소 등의 부정적 요인보다 더 크게 작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히고, "한국 교회들의 선교에 대한 인식이 약화되고, 선교비를 모금하기가 어려운 사정에도 불구하고 선교사 자원자들이 아직 많이 배출되는 이러한 경향은 향후 수년간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다만 이 통계수치는 지난번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가 발표한 숫자와 차이가 있어 다시금 상호 정보를 확인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홍은혜 기자

류광수 목사 이사장인 단체, 한기총에 탈퇴 의향서 제출

이영훈 목사 '통합 논의 급물살 타길'…한교연 측 '의미 없다'

세계복음화전도협회(이사장 류광수 목사)가 9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이영훈 목사, 이하 한기총)에 탈퇴 의향서를 전격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 측은 이 문서에서 "최근 한국교회총연합회가 한기총과 한교연 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기총 회원인 본 협회가 통합의 걸림돌이 된 듯 논란이 되어왔다는 점에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기꺼이 한기총을 탈퇴해 한국교회 통합의 마중물이 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협회 측의 탈퇴 의향서 제출이 (가칭)한국교회총연합회(이하 한교총)의 출범 직전 있었다는 점에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류광수 목사가 소속된 예장 개혁 측은 여전히 한기총 회원으로 남아 있다.

이에 대해 한기총 이영훈 대표회장은 한교총 출범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협회 측의) 순수한 동기에 대해 다른 의혹이 없었으면 한다"며 "한교총 출범을 앞두고 이런 결정을 내려준 것에 대해 감사한다. 이를 계기로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정서영 목사) 관계자는 이와 관련, "(류광수 목사가 소속된) 교단이 여전히 (한기총에) 남아 있는 이상 의미 없다"고 했다.

한편 10일 오전 열린 한기총 제27~3차 실행위원회에서 개혁 총회 측 참석자들은 관련 안건이 다뤄지는 가운데서도 별다른 이의를 하지 않았다. 기타안건에서 '세계복음화전도협회 한기총 탈퇴의 건'이 거론됐으나, 이미 탈퇴한 탓인지 한 목회자만이 절차상 문제를 제기했고 이영훈 대표회장도 유감 표명을 하지 않았다. 이날 실행위원회에는 예장 개혁 총회장과 부총회장, 정학채 증경총회장 등이 참석했다.

어쨌든 '뜨거운 감자'인 회원교단 예장 개혁(총회장 최정웅 목사)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예장 개혁 총회는 계속해서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진영 기자


(가칭)한교총 출범예배 후 이영훈 목사(앞줄 맨 오른쪽) 등 주요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에 임하고 있다.



황인찬 위원장(앞줄 오른쪽에서 세 번째) 등 한교연 바수위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에 임하고 있다.

"한교연, 교단 인사 이단·사이비성 조사"

정치적 의도 없고 하나됨 위한 목적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정서영 목사, 이하 한교연) 바른신앙수호위원회(위원장 황인찬 목사, 이하 바수위)가 11일 오후 서울 한교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이영훈 목사, 이하 한기총) 소속 일부 교단 인사들의 이단·사이비성을 연구·조사하기로 했다.

바수위 위원장 황인찬 목사는 이날 "한기총 내 10여 개 교단 안에 있는 인사들의 이단·사이비성을 연구·조사하기로 했다. 나름대로 명단을 작성했다"며 "정치적 의도는 없고 (한기총과의) 하나됨을 위해 연구·조사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그 대상자가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았으나 "이영훈 목사님이 이단·사이비성이 있는 곳을 넘나들면서 메시지를 전하고 설교하며, 교류를 계속하는 일들에 대해 (한교연의) 입장을 표명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이번 연구·조사 대상에 이 목사가 포함된다고 했다. 여의도순복음교회 조용기 원로목사 역시 그 대상이라고 했다.

그러나 황 목사는 "지난 5~6년 사이 아무런 검증 없이 새롭게 거듭난 것처럼 한기총 안에서 자리를 잡고 있는 이들이 있다"며 "이번 연구·조사의 주요 대상은 바로 이들이다. 대단히 상식적인 선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교연 바수위는 이단을 지정하거나 해제하지 않는다. 그것은 치리권을 가진 각 교단이 하는 것"이라며 "다만 우리는 회원교단들을 위해 연구만 할 뿐이다"라고 덧붙였다.

김진영 기자



바벨탑 사건 '심판' 아닌 다양성 위한 거룩한 유도?

PCUSA 대규모 집회서…한 신학교 총장이 주장

미국장로회(PCUSA)의 대규모 연례 대학집회에서, 하나님께서 바벨탑에 내린 심판의 사건에 대해 "다양성을 향한 거룩한 유도"라는 분석이 나왔다고 크리스천포스트가 PNS를 인용해 최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아틀란타에 소재한 존슨 C. 스미스 신학대학교 총장인 폴 로버츠 목사는 지난 2~5일까지 노스캐롤라이나 몬트리트에서 열린 컨퍼런스에 참석해 이같이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벨탑에 대한 설명이 신화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약 1,000명의 학생들이 참석한 이번 컨퍼런스는 '바벨을 넘어서'(Beyond Babel)라는 주제로 창세기에 나타난 바벨탑을 다뤘다.

그는 "성경은 꾸며진 이야기 책"이라고 언급하진 않았으나 신화라고 표현했다. 그는 "역사를 나타내기 위한 목적이 아닌 진리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드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문화의 특정 형식이 사용된 것"이라고 말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스스로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하늘에 닿는' 바벨탑을 쌓고 도시를 건설하는 모습을 보신 후, 인간의 언어를 혼란케하시고 흩으셨다.

앞서 공개된 홍보용 자료에서 그는 하나님께서 바벨의 사람들을 흩으시고 그들에게 다른 언어를 주신 것이 심판이 아니라 다양성을 위한 것으로 언급하고 있다.

"2017년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고대 사람들에게 다양성을 향한 거룩한 유도하심을 주셨는지 보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를 어떻게 유도하시는지 알아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컨퍼런스에서 설교를 맡은 로버츠 목사는 바벨탑 사건을 사도행전에 나타난 오순절 성경강림 사건과 대조해서 말하기도 했다.

그는 "흩어진 이들은 각자의 언어로 말하면서 다른 지역들 주변으로 이동했다. 그러나 이와 대조적으로 사도행전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오순절 이야기에서는 성령께서 나타나시고, 갑자기 언어의 공통성이 생겼다. 이들은 서로 다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고 했다.

이어 "여러분이 설교 중에서 진정한 일치가 존재하는 부분을 꼽는다면 이 부분일 것이다. 다양한 개념, 배경,나이, 계층, 성, 지향성을 가진 이들이 일치된 공동체를 향해 나아간다. 이때가 공동체적 성취에 대한 잠재력이 가장 높다"고도 했다.

강혜진 기자

마귀의 유혹을 받고 있다면?

빌리 그래함 목사…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만 주시는 분이시다



빌리 그래함 목사

ⓒ빌리그래함전도협회

복음주의자 빌리 그래함 목사는 "그리스도께 삶을 드린 이들이라도 유혹을 받을 수 있으며, 오히려 사단의 더 큰 유혹에 직면할 수도 있다"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주실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래함 목사는 11일 자신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인 '캔사스시티스타'에 올린 글에서 "예수님보다 더 많은 유혹을 받은 이들은 없다. 그분은 40일 동안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을 받으셨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만약 예수님께서 유혹을 받으셨다면, 우리도 유혹을 받지 않겠나? 성경에서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모든 일에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는 분(히 4:15)이라고 기록돼 있다"면서 "믿는 자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혹과 싸워야 한다. 또 마귀의 책략과 동기를 잘 알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야 하고 그분께 의지하여 사단과 그의 거짓말에 저항해야 한다. 당신은 과거의 당신이 아니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당신 안에 내주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이켜 유혹과 싸우기 위해 필요한 도움을 구하라"고 조언했다.

그래함 목사는 앞서 크리스천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사단은 우리를 유혹하고 속이고, 파괴하며, 목적에 따라서 죽이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혹에 관하여는 해 아래 새로울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이 유혹에 대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면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말씀을 인용했다.

강혜진 기자

美 대통령 취임식, 동성애 반대 목사 기도

오바마 대통령 취임식 당시…이슬람·동성애 반대 목사들 기도 못해

오는 2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서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목사가 기도할 수 있게 되어 버락 오바바 대통령 취임식 때와 대조를 이루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준비위원회는 이번 취임식에는 로널드 대통령 취임식 이후 최대인 6명의 종교지도자가 참석해 성경을 읽고 기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이 밝힌 종교지도자는 3명의 개신교 목사, 2명의 가톨릭 주교, 1명의 유대교 랍비다.

이 가운데 주목받는 사람은 세계적 복음전도자인 빌리 그래함 목사의 아들인 프랭클린 그래함 목사다. 그는 오바마 대통령 시절 동성결혼과 이슬람을 공개적으로 반대해 오바마 정부가 싫어하는 목사였다. 대표적인 예가 2010년 5월 국가기도의 날에 그래함 목사가 펜타곤 건물 밖에서 기도한 사건이다.

당초 그래함 목사는 펜타곤에서 열리는 국가기도의 날 행사에서 기도를 하기로 부탁받았다. 하지만 그가 '이슬람은 악'이라고 한 말에 오바마 행정부 내 이슬람 동조 세력들이 반발하면서 초청이 취소되었다. 그래함 목사는 이에 항의하며 이날 펜타곤 밖에서 기도했다.

그는 기도를 마친 뒤 이슬람을 악이라고 여전히 믿는냐는 질문에 "그들이 여자를 대하는 방식은 악이라고 믿는다. 그렇다"라고 밝힌 뒤 "모든 종교가 동일하다고 믿지 않는다. 하나님께 가는 길은 오직 하나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다"라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 취임식 때는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목사가 기도 순서를 맡았다가 취소되는 일이 있었다.

2013년 1월 오바마 대통령 재임 취임식 때는 조지아 애틀란타에 소재한 '패션시티'(Passion City)교회의 루이 기글리오 목사가 기도할 예정이다. 하지만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반대한 그의 설교가 알려지면서 문제가 되자 기글리오 목사는 대통령 취임식 기도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기글리오 목사는 당시 설교에서 "동성애는 다른 형태의 삶의 스타일이 아니다. 동성애는 성적인 선호도 아니다. 동성애는 죄다. 하나님 보시기에, 성경에 비추어볼 때 죄다"라고 말했다.

대통령취임식 준비위원회는 모든 미국인을 포용하고 받아들이려는 오바마 행정부의 비전을 제대로 반영하는 사람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찾은 사람이 동성애를 지지하는 성공회 목사인 루이스 레온 목사였고 그는 기글리오 목사 대신 오바마 대통령 취임식 때 기도를 했다.

2009년 1월 오바마 대통령 초임 취임식 때도 역시 동성애를 반대한 캘리포니아 새들백교회의 릭 워렌 목사가 기도를 하게 되자 동성애자 권익 세력들의 반발이 컸지만 워렌 목사는 취임식 때 기도할 수 있었다.

[케이아메리칸 포스트 제공]

교회 및 선교회

LA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젊은이 예배 오후 2:22 오전 6:20(토)
주일 - 버질중학교 / 토요새벽 - 1가와 버몬트 코너
주중새벽- 520 S, La Fayette Park Pl, #450, Los Angeles, CA 90057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깨우고,이민2세를책임지며,이민가정을치료하며,선교명령을순종하는교회
520 S. La Fayette Park Pl. #450, Los Angeles, CA 90057
주중연락처 T. (213)386-2233

주일예배 오전 11:20 수요예배 오후 7:00
주일학교 오전 11:20 토요 새벽기도회 오전 6:00
학생, 청년부 예배 오전 11:20
연제선 담임목사
LA 온하늘교회
1540 S. St Andrews Pl., Los Angeles, CA90019
T.(818)983-9024

주일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 - 토)
수요기도회 오후 7:30
장태원 담임목사
LA세계선교교회
선교를 통해 행복한, 사랑의 공동체
1025 S Catalina St, Los Angeles, CA90006
T. (213) 909-6473 / www.missionla.org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연합새벽 오전 6:20
한천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교회
함께웃고 함께우는 공동체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churhc.com

1부예배 오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2부예배 오전 10:30 오전 6:00 (토)
3부예배 오후 12:45 유초등부 오후 12: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중고등부 오후 12:45
강진웅 담임목사
갈보리믿음교회
피난처 되시는 예수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제자들의 공동체
33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90010
T. (213) 365-8880 / F. (213) 365-8802

주일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월~토) 오전 6:00
매일 성경통독 (월~토) 오전 7:00
엘리야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1508 S. Vermont Ave., LA, CA 90006
T. (213) 272-6031

1부예배 오전 7:40 EM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3부예배 오전 11:45 수/금요예배 오후 7:30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어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주일예배1부 오전 8:00 금요예배 오후 7:30
주일예배2부 오전 9:3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5:30
주일예배3부 오전 11:00
박영천 담임목사
나성동산교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
2525 W. James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
T.(213) 487-3920

1부예배 오전 8: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5:30
유초등부, 중고등부 오전 11:00 토 오전 6:30
EM 예배 오후 1:00 토요공부방 토 오전 9:30~12:30
한어청년부 오후 1:30 어머니기도모임 수 오전 10:30
서건오 담임목사
나성서부교회
영적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 영적 리더쉽을 발휘하는 교회
1218 S. Fairfax Ave., LA, CA 90019
T. (323)939-7323 / www.kwpcla.org

1부예배 오전 7:30 성인 EM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30 한어청년예배 오후 2:00
3부예배 오후 1:00 찬양예배 오후 3: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시
박헌성 담임목사
나성열린문교회
하나님나라의 비전을 실현하는 교회
3281 W. 6th St., LA, CA 90020
T. (213) 383-2600, (213) 383-2602 / laopendoor.org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저녁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유초등부 오전11:00 6:00(토)
중고등부 EM 오전11:00
김문수 담임목사
나성제일교회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

1부예배 오전 9:00 유초등부,중고등부 오전11:00
2부예배 오전11:00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 주일 오후 1:30
수요집회 오후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분 (화~금)
오전 6:00 (토)
정우성 담임목사
남가주광염교회
말씀과 기도로 비상하는 은혜공동체
1153 Valencia St., Los Angeles, CA 90015
T.(213)598-0191

주일예배 오전 10:30 중고등부 예배 주일 오전 10:30
EM예배 주일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청년부 예배 주일 오후 1:30 목요찬양예배(목요일)오후 7:30
교회학교 주일 오전 10:30
김경렬 담임목사
산타모니카교회
죽도록 섬기는 교회
1520 Pearl St., Santa Monica, CA 90405
T. (310)502-9999 / www.smkc.us

1부예배 오전 09: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EM예배 오전 10:00
조인수 담임목사
써니사이드교회
하나님을 기쁘게 주님의 소원을 이루며 예수 안에서 행복한 공동체
1183 S. Hoover St., Los Angeles, CA 90006
T. (213) 389-0691 / F. (213) 389-0694

주일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주일오후 12:00
토요탈북민 모임 오전 11:00
김영구 담임목사
나눔장로교회 엔키아 선교회
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치는 교회
3407 W. 6th St. #412, Los Angeles, CA 90006
T. (310) 404-6219

1부예배 오전 8:30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00
김요섭 담임목사
열매교회
전도하는 교회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323)737-3009 C. (213)215-8523

1부예배 오전 09: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20 (월-금)
김종호 담임목사
예향선교교회
복음의 향기로 지역과 열방을 섬기는 교회
4323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9
T. (213) 281-1196 / E.isaacdew@hotmail.com

1부예배 오전 8:30 금요기도회 오후9: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5:30
3부예배 오전 1:30
정장수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같은 말, 마음, 꿈, 열매
3250 Wilshire Bl. #160., Los Angeles, CA 90010
T.(213)387-1700 C.(213)500-4737 / olympic-church.org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류종길 담임목사
임마누엘선교교회
행복한 성도,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1818 S. Western Ave., #200, Los Angeles, CA 90006
T. (323) 766-9922 / www.laimch.com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요/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1부예배 오전 9: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화-금), 오전 6:30 (토)
중고등부, 유초등부 오전 11:00
4대 사역 : 유아원 사역, 후드 사역, 장학 사역, 십자가 사역
이명수 담임목사
청운교회
선교에 흐름,소.친.초 정신의 흐름,바른교회관의 흐름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민종기 담임목사
충현선교교회
불러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818) 549-9191 / F.(818)549-9199 / choonghyun.org

주일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한글학교주일오전10:00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유초등부 오전11:00
오전 6:00 (토) 중고등부 오전11:00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213)321-4433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수요예배 오후 7:30
강지원 담임목사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주일감사예배 : 주일 오전 11:00
수요성경공부 : 저녁 8:00 새벽기도회 : 오전5:30(월~금)
금요성령집회 : 저녁 8:00 새언약한국학교: 토요일 오전 10:30
교회학교(Child Youth) : 매주 주일 오전 11:00
강양규 담임목사
남가주 새언약교회
성령께서 이끄시는 교회
3407 W. 6th St, #601, #620, LA, CA 90020
T. (213)465-9693, (213)434-1083 www.new2011.org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읽는 90일 성경일독
오늘 성경 읽으셨나요?
대표 주해홍 목사
에스라성경통독사역원
Ezra Bible Reading Ministry
1661 Raymond Ave. #265, Anaheim, CA 92801
www.ezrabiblereading.com

LA동부, 팜스프링스지역, 라스베가스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4부예배 오후 1: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오전 6:30
고태형 담임목사
선한목자교회
선포하고 가르치는교회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909)591-6500 sunhan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영어예배 오후 1: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성령집회 오후 8:00
금요성경공부 오후 8:00
이희철 담임목사
갓스윌연합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0:3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주일성경공부 오전 9:3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주일오전 10:30
영어회중예배-주일 오후 1:0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공동체, 성령공동체, 선교공동체
500 Montebello Blvd., Rosemead, CA 91770
T. (626)872-2405 교회 , (503)332-1941
www.newhopechurchla.com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9:45
3부예배 오전 11: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고승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15
3부예배 오전 11:45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EM 1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45
수요말씀강해 오후7:30
새벽예배 오전(월-금)5:30 (토) 오전 6:00
박신철 담임목사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 inland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기도회 오후 9:00
창대교회 사랑의 나눔터(매주 토) 오전10:00~11: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이춘준 담임목사
창대교회
하나님께 영광!
3630 N. "E" ST., San Bernardino, CA92405
T.(909) 388-2940

주일예배 오전 9시 (지성전)
오전 11시 (본성전)
금요예배 오후 7:30
매일QT 월~금 오전 6:0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최승목 담임목사
팜스프링스한인감리교회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는 교회"
본성전 : 75580 E. Ramon Rd., Thousand Palms, CA 92276
지성전 : 66700 E. 5th St., Desert Hot Springs, CA 92240
T. (760) 636-2675 / pspkmc.com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오전 6:00 (토)
금요기도회 오후 8:00
이승준 담임목사
하나로커뮤니티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공동체
18616 E. Rorimer St., La Puente, CA 91744
T. (626) 912-6600 / www.hanaro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중보기도모임 오전 10:30
성경공부 오후 7:30 (화)
수요예배 오후 7:30
EM성경공부 오후 7:00 (금)
금요성경공부 오후 7:00
송재호 담임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오후예배 오후 2: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조응철 담임목사
라스베가스갈보리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사우스베이 지역

주일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훈련 오후 2:00
금요 중보기도회 오후 7:30
이상훈 담임목사
주비젼교회
하나님 마음으로 열방을 열자
1626 W. Gardena Blvd. #D. Gardena, CA90247
T. (714) 296-6783 www.sbhisvision.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열린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30
1부예배(EM) 오전 11:00
2부예배(EM) 오후 1:15
중.고등부예배(EM) 오전 11:00
금요 중보기도회 오후9~11시
정상용 담임목사
나성금란연합감리교회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310) 973-5106 / F. (310) 973-7429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4부(젊은이예배) 오후 1:30
EM예배 오후 1:30
한어청년부 오후 2:15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6:00
김준식 담임목사
남가주샬롬교회
Shalom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20050 S. Vermont Ave., Torrance, CA 90502
T. (310)787-1004 shalomch.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4부(젊은이예배) 오후 1:30
EM 1부 9:30/ 2부 11:00
중/고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권영국 담임목사
대흥장로교회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구원하라!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15 (화-금)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10: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서보천 담임목사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 doulos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화-토)
청년부예배EM 오후 1:30
강신권 담임목사
세계성경장로교회
말씀과 함께 세상 속으로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257-817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청년부) 오후 1:30
EM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5:50
금요성령대망회 금 오후 7:20
박성규 담임목사
주님세운교회
Vision 7300으로 지역사회와 세계복음화에 힘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2: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 (화-토)
이종용 담임목사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 cornerstonetv.com

파사데나, 라크라센타, 라캐냐다, 글렌데일, 밸리, 벤추라, 버뱅크 지역

주일 예배 오전 11:00
주일 성경공부/새교우반 새벽예배 오전 7:00 (토)
오후 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20
글렌데일한인장로교회
예수님을 붙잡고, 자라는, 건강한 교회!
4002 Verdugo Rd., Los Angeles, CA 90065
T. (323) 254-4012 / gkpchurch.com

주일 1부 오전 8:00
2부 오전 10:30
EM예배 오후 12:30
유년부 오전 10:30
중고등부 오전 10:30
한어청년 오후 12: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이정현 담임목사
만남의교회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18101 Lassen St. Northridge,CA 91325
T. (818)882-9191 F. (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유년부 오전 11:00
EM 오후 1:00
한글학교 주일 오전 10: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금)
Awana 오후 8:00(금)
Youth Friday Service 오후 8:00(금)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방수민 담임목사
베다니한인교회
문턱낮은 교회 변화받는 교회 찬미하는 교회
2401 N. Brighton St., Burbank, CA 91504
T.(818) 845-5431 F. (818) 845-1683 / bkchurch.org

주일 1부 오전 8:00
주일 2부 오전 9:30
주일 3부 오전 11:30
젊은이예배 오후 2:00
EM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금요영성집회 오후 7:45
윤대혁 담임목사
사랑의빛선교교회
말씀위에 굳게 서리라
2801 E Colorado Bl., Pasadena, CA 91107
T. (626)744-9191

주일예배 1부 오전 11:00
주일예배 2부 오후 1:30
EM/YOUTH 예배 오후 1:30
유.초등부 예배 오후 1:30
새벽 예배 기도회 오전 5:30(월~금)
금요예배기도회 오후 7:45
박정환 담임목사
예수인교회
Christian Missional Church
10452 Louise Ave. Granada Hills, CA 91344
T. (434) 229-6597 / cmc-12.com / yesuin12@gmail.com

주일 대예배 오전 11:20
영어예배 오전 10: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
곽덕근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1부 예배 오전 8:30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성령집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김인식 담임목사
웨스트힐장로교회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제자가 되어 3300 세계비전을 이루는 생명공동체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밸리채플 Valley Chapel
주일 1부 예배 오전 8:45
주일 2부 예배 오전 11:45
새벽예배 월-금 5:30, 토 6:00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
T. (818)363-5887
LA예배처소
주일 1부 예배 오전 8:45
주일 2부 예배 오전 10:3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3460 Wilshire Blvd, Ste 700, LA, CA 90010
Tel: (213) 232-3163
최 혁 담임목사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T. (818) 363-5887 / www.In-ChristCC.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키릴 러시아정교회 총대주교(오른쪽)와 블리디미르 푸틴 대통령. ⓒ미국 크리스천포스트 via RIA

키릴 대주교 '시리아 기독교 공동체' 방문 계획

종교간 대화를 위한 자문 기구 창설도 논의

러시아정교회 수장인 키릴 2세 대주교가 시리아 무슬림 지도자들과 종교부 지도자들로부터 방문 요청을 받았다.

이번 방문이 성사될 경우, 키릴 대주교는 시리아의 기독교 공동체인 마울라 마을을 방문할 계획이다. 이 마을은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아람어를 사용하고 있다.

모스크바의 무프티(이슬람교 지도자) 알비르는 인테르팍스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기독교인들을 위한 지지 차원에서 그의 방문이 매우 중요하다"고 전했다.

그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의 보호 아래 시리아를 지원하는 종교간 대화를 위한 자문 기구를 창설하기 위한 논의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우리는 최근 시리아에 대한 인도주의적 도움을 통합하고 선별하는 작업을 고려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민 사회의 노력과 전통적인 종교를 대표하는 지도자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정교회 내에서 영향력을 키우고 있는 러시아정교회는 시라아에 기반을 둔 안디옥교회 대주교를 위해 헌금을 모금했었다. 이는 분쟁으로 인한 위기를 인도주의적으로 극복하는데 쓰였다.

러시아의 후원은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의 생존에 거의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아사드 대통령은 시리아군 지원 및 반군을 상대로 한 캠페인에서 모두 러시아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아사드 정권이 이 지역의 이익을 얻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다. 러시아는 현재 중동의 유일한 러시아 해군 기지인 타르투스에 많은 병력을 주둔시키고 있다.

강혜진 기자

英밀레니얼 25% '英 기독교 국가 아니다'

기독교 국가로 생각한 이들은 전체 응답자의 33.3%



케이티 해리스 소장
ⓒ英크리스천투데이

영국 밀레니얼 세대(1980년대 초부터 2000년대 초까지 출생한 세대)의 25%는 영국을 더 이상 기독교 국가로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英크리스천투데이가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여론조사 기관인 콤레스(ComRess)에서 실시한 이번 연구는 이달 말 페이스리서치센터(Faith Research Center, FRC)의 보고서에 실릴 예정이다.

콤레스는 4일부터 5일까지 총 2,048명의 영국 성인들을 대상으로 이같은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결과, 영국을 기독교 국가로 생각한 이들은 전체 응답자의 33.3%였으며, 25% 이상이 영국은 더 이상 특정한 종교적 정체성이 없는 국가로 생각했다.

그러나 응답자의 50%는 "영국 정치인과 정책 결정권자들은 반드시 종교에 대한 선한 이해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또 "종교를 이해하는 것은 전 세계 테러리즘을 막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도 했다.

페이스리서치센터의 신임 소장인 케이티 해리슨 박사는 "우리가 제시한 일부 질문에 대해 밀레니얼 세대들과 65세 이상된 성인들이 정반대로 답했다"면서 "종교와 신념에 대한 세대간 인식이 큰 차이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또 "이같은 사실은 우리가 최근 실시한 여러 프로젝트 결과와도 일치한다. 우리는 20대 청년들의 태도와 필요를 이해하는데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특별히 신앙적인 연구에 있어서 더욱 그러하다"고 덧붙였다.

세계적인 기독교 자선단체인 티어펀드(Tearfund)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해리슨 소장은 "영국 난민 캠프 내에 있는 중동과 사하라 아프리카 이남(Middle East and sub-Saharan Africa), 도시 낙후지역, 지방 마을의 공동체와 함께 일하면서, 종교와 신념이 많은 이들의 삶 가운데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알게 됐다. 이를 간과할 때 행동와 문화를 움직이는 중요한 요인을 오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혜진 기자

이탈리아, 10년 안에 '무슬림' 국가?

기독교인들과 달리 무슬림들은 자녀를 2~3명씩 낳는다

"바티칸 성당이 있는 이탈리아 로마가 무슬림들에게 둘러쌓이게 될 것이다"

이탈리아가 10년 안에 이슬람 국가가 될 수도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英크리스천투데이에 따르면 폼페이 명예사제인 카를로 리베라티 사제는 "유럽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도덕적 타락을 수용하고, 유럽 내 무신론자들의 수가 늘면서 이탈리아를 비롯한 유럽 내 무슬림들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우리의 무지로 10년 안에 우리 모두는 무슬림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탈리아와 유럽은 이방적이고 무신론적인 방식으로 살고 있다"며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법을 만들고 우상숭배에 합한 전통을 갖고 있다. 이 모든 도덕적·종교적 타락은 이슬람을 선호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1970년대 이탈리아에는 약 2,000명의 무슬림이 살고 있었다. 40년이 지난 후 이 수는 약 200만 명으로 늘었다.

지난 몇 년간 중동과 아프리카 출신 무슬림들의 이민이 증가한 것도 그 원인이다.

리베라티 사제는 "일부 신학교 학생들의 수는 줄고, 교회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 기독교인들과 달리 무슬림들은 자녀를 2~3명씩 낳는다"면서 기독교가 하락하는 여러가지 이유들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우리는 총제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은 교구 뿐이다"며 우리에게는 진정한 기독교인의 삶이 필요하다. 이 모든 것이 이슬람에 길을 내주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실제로 수니파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IS는 현재 로마와 바티칸 시티를 공격 목표 1순위로 삼고 있다. 기독교의 본산인 바티칸을 없애고, 이슬람 제국을 건설하겠다는 이유다.

'The Complete Infidel's Guide to ISIS'의 저자인 로버트 스펜서는 "IS는 2025년까지 10년 안에 무슬림과 비무슬림 간의 마지막 전쟁인 아마겟돈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이들은 로마 정복을 아마겟돈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발판으로 삼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강혜진 기자



박해 받는 이집트 콥트교회 교인들. ⓒ자료사진

귀국 이집트 기독교인들 보호 절실

리비아에서 이집트로 귀국…IS에 붙잡힐 위험에 처해

리비아에서 고향 이집트로 귀국하던 수 십명의 기독교인들이 이슬람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 조직원들에게 붙잡힐 위기에 처해있어 국제사회의 조속한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최근 크리스천포스트는 기독교 박해감시단체인 국제기독연대(ICC)의 발표를 인용해 "이집트 기독교의 한 종파인 콥트교회 교인 30여 명이 IS 대원들에 둘러쌓인 채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가족을 위해 리비아로 넘어가 돈을 벌던 이집트인 노동자들로 IS의 위협에서 벗어나 안전한 귀가를 모색하고 있다.

한 이집트 기독교인은 ICC와의 통화에서 "일꾼들은 리비아 미스라타에서 발이 묶여 있다"며 이들이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집트 당국에 개입을 요청했다.

그는 다른 이집트인들과 함께 IS의 감시를 피해 리비아 미스라타에 있는 한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ICC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이집트에서 리비아로 들어오는 노동자들은 리비아 도시 시르테를 통과하는데, 시르테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활동하는 곳으로 이들은 버스를 세운 뒤 탑승자 중 기독교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하나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다른 길은 리비아 수도인 트로폴리를 거쳐 이집트로 가는 길인데 이 지역으로 향하는 길목 역시 IS의 통제 아래 놓여 있다.

IS는 "기독교인이 어디에 있든지 계속해서 죽일 것이며, 이들을 보호하고 있는 자들도 예외없이 죽이겠다"고 선포한 상태다.

일부 이집트 기독교인들은 리비아 내 IS 대원들에게 인질로 붙잡혀 참수당할 수 있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찾아 리비아로 출국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실제로 약 2년 전 IS는 리비아로 건너온 콥트교회 기독교인 21명을 납치해 참수했다. 당시 IS는 이들을 참수하는 영상까지 공개했는데, 이는 지금까지 영상으로 알려진 기독교인 학살 가운데 가장 큰 규모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ICC는 IS에게 붙잡힐 위기에 처한 이집트 콥트교회 교인들이 안전하게 귀국하도록 기도를 요청했다.

장소피아 기자

가장 큰 교회 지어 주겠다

이집트 대통령…콥틱 기독교인들에게 약속

이집트 대통령이 이집트 콥틱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큰 교회를 지어주기로 약속했다고 최근 英크리스천투데이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압델 파타 알시시 이집트 대통령은 이를 위해 약 10만 이집트파운드(620만 원)를 내놓았다. 이 프로젝트에는 큰 모스크 사원을 짓는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그는 카이로에 소재한 콥틱정교회 성당에서 타와드로스 2세가 집전한 성탄 예배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알시시 대통령은 또 2013년 무함마드 무르시 대통령이 축출된 이후 2013년 발생한 폭동으로 파괴되고 무너진 교회들의 재건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작년 12월 폭탄 테러로 무너진 카이로의 부트로샤 성당 재건공사도 감독하고 있다.

27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던 당시 테러에 대해 타와드로스 2세 대주교는 "이는 단순히 교회의 재앙일 뿐 아니라 국가의 재앙"이라고 비판했다. 알시시 대통령은 폭탄 테러로 사망한 이들을 위해 국가장을 치렀다.

작년에 그는 "이집트 기독교인들이 지혜와 애국주의의 정신을 드러내고 있다. 이들은 또 종교를 극단주의 사상과 분열의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이들에 맞서 연합되어 있다"며 찬사를 보내기도 했다.

이집트에서는 2011년 아랍의 봄 이후 기독교인들과 무슬림들 사이의 긴장이 계속되고 있다. 그 중 가장 심각한 박해 사건은 지난 2015년 2월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이슬람국가(IS)가 리비아로 건너간 이집트 콥틱 기독교인 21명을 참수한 사건이었다.

강혜진 기자

청각장애인 무슬림, 수화로 복음 접하고 회심

하나님 말씀 배운대로…예수 그리스도 따라 살겠다

청각 장애를 지닌 무슬림이 친구의 초청을 받아 간 교회에서 수화로 성경의 내용을 접한 후 그리스도께 자신의 삶을 드렸다고 최근 크리스천포스트가 보도했다.

미국 플로리다에 소재한 성경번역단체인 위클리프 협회에 따르면, 아이요 (Ayo)라는 이름의 이 무슬림 남성은 최근 위클리프가 개최한 전도 행사에 참석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아이요는 자신의 블로그에 "하나님께서 오늘 친구를 통해 나를 교회로 인도하셨음을 알고 있다. 난 교회에 한 번도 간 적이 없다. 난 무슬림으로 자랐고, 가족들과 항상 모스크에 갔다. 가족들의 기대대로 그렇게 해야했지만 기도회에 참석해서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고 말했다.

가족들 중 유일하게 청각 장애를 가진 그는 모스크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어려움이 있었다고 한다. 모스크에는 수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고, 아무도 그의 사정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다.

아이요는 그러나 "(교회에서) 난 오늘 집에 있는 것처럼 느꼈다. 이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이해할 수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 교육을 위한 접근이 내게 감동을 주었다. 내가 탕자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게 됐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셔서 큰 평안함을 느꼈다"고 덧붙였다.

그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배운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기로 마음을 먹었다"면서 "탕자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를 반기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나를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안다. 가족들과 친구들의 큰 반대가 있을텐데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했다.

청각장애인성경협회(Deaf Bible Society)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400개 이상의 수화가 있으며, 약 7,000명이 넘는 이들이 수화를 주요 대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전 세계 청각장애인들의 2%만 복음을 접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선교 단체인 'Deaf Opportunity Outreach International'에 따르면, 신약성경 전체가 번역된 경우는 미국 수화 뿐이다.

강혜진 기자

O.C./얼바인 지역

결혼교실,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M.org **김철민** 장로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주일예배 1부 주일 9:00AM 주일예배 2부 주일 11:00AM 주일학교 주일 11:00AM 대학청년부/E-college 주일 2:00PM 제자훈련/사역훈련 화~목 7:30PM 새벽예배 월-금 5:30AM 토 6:30AM NEXT한국학교 토 9:30AM~1:00PM NEXT Kids club 주일 12:40AM~1:40PM **김일영** 담임목사
NEXT 사랑의교회
NEXT Sa-Rang Church
11 Musick Irvine, CA 92618 Tel (949)829-0010(office)
www.nextsarang.com

주일예배 (1부) 10:00am (2부) 1:30pm 새벽예배 (월-토) 5:00am 화요중보기도회 7:00pm 수요돌파기도회 9:00pm 금요온전철야예배 8:00pm ~(다음날) 7:00am 토요청년예배 7:00pm **앤드류 김** 담임목사
UBM교회
3세대가 함께 성령안에서 자유롭게 예배하는교회
1531 S.Sinclair St., Anaheim, CA 92806
Tel: 714-634-8360, Cell:714-600-7700 www.ubmchurch.com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한어대학청년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 오후 7:30 장애인예배 오전 11:30 영어장년부 오전 9:30, 11:30 새벽기도회 5:30(월-금)/6:00(토) **김영길**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사랑받고 사랑하는 교회,전도와 선교에 정성을 다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11:0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셀가족 예배 : 매월 4째주 주일 오후 5:30분 대학청년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 예배 오전 11:00 **오병익** 담임목사
남가주 벧엘 교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소문난 교회
5600 Crescent Ave., Buena Park, CA 90620
T.(714) 806-2562 kpcadavid@yahoo.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영 유아부 오전 11:00 유 초등부 오전11:00 중고등부 오전11:00 나침반 한국학교 주일 오전 9:15 EM,대학부 오후 1:30 새벽예배 월-금 오전5:30, 토 6:30 **민경엽** 담임목사
나침반 교회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Lambert&Puente)
T.(562)691-0691 F.(562)691-0698 / nachimban.org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학교 오전 9:00 금요성령집회 오후 8:00 한글학교 오후 6:00 (금) 새벽예배 새벽 5:30 (월-금) **박재만** 담임목사
남가주순복음교회
죽어가는 세상을 성령의 능력으로 살리는 교회
3111 W. Orange Ave., Anaheim, CA 92804
T. (714) 952-0191 / www.socalfgc.com

1부 주일예배 오전 8:00 2부 주일 영어예배 오전 10:00 3부 주일예배 오후 1:30 토요새벽 오전 6:00 본당 금요공부 저녁 8:00 본당 **허귀암** 담임목사
놀웍연합감리교회
Norwalk United Methodist Church Korean Ministry
13000 San Antonio Dr., Norwalk,CA 90650
T.(562)802-4959 C.(714)308-7308 / usa8291@gmail.com

주일예배(KM) 주일11:00am 영어예배(EM) 주일 9:00am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유아유치부,유초등부,중고등부) 금요찬양예배 8:00pm (매월 두번째 금) 새벽예배 화~금 5:30am 토 6:00am **안창훈** 담임목사
늘푸른선교교회
Mission Community Church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주일예배 오전11:30 금요예배 오후8시 새벽예배 (월-금) 오전5:30 EM주일 오전11:30 교육부 오전11:30 **김일권** 담임목사
다감사교회
The Gamsa Community Church
2000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714)988-3321, www.dagamsachurch.org

주일예배 1부 오전8:30 2부 오전 10:30 3부 오후 12:20 4부 오후 2:00(젊은이예배) 주일학교 오전 10:30 새벽예배 월~금 새벽 5:30 토 새벽 6:20 **고현종** 담임목사
디사이플교회
17502 Daimler St., Irvine, CA 92614
T.(949)502-4923 / www.disciplecc.org

1부예배 오전 8:45 2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9:30 금요 Alpha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이 서** 담임목사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2536 W. Woodland Dr., Anaheim, CA 92801
T. (714)821-9900,9901 / visioncc.org

1부예배 오전 7:15 2부예배 오전 9:15 3부예배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성인 영어 예배 오전 9:15, 오전 11:30 일본어 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오전 9:15, 오전 11:30 **김한요** 담임목사
베델한인교회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 기도모임 오후 8:00 토요한글학교, 에프터스쿨 P-kinder(Korean) 오전 11:00 Children(1-6) 오전 11:00 Youth(7-12) 오전 11:00 College 오후 1:00 **이동준** 담임목사
얼바인 아름다운 교회
17702 Cowan, Irvine, CA 92614
T. (949)250-1111 / www.beautifulch.com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2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30 중등부 오전9:15 고등부 오전11:30 한어부 오전11:30 KM대학청년부 오후 2:00 **권혁빈** 담당목사
얼바인온누리교회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949)261-9100 / vision.onnuri.org

주일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대학청년부 오후 1:3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6:00 **홍성준** 담임목사
얼바인 한믿음교회
믿음으로 하나되는 교회
18182 Culver Dr., Irvine, CA 92612
T. (949)769-9628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후 11:30 4부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토요일 오전 06:00 금요성령예배 오후 08:00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받는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EM 오후 1:30 히스패닉 예배 오후 5:00 수요기도회 : 오후 8:00 새벽기도 :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주혁로** 담임목사
주님의빛교회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252-9191 / www. lordlight.org

플러튼 채플 Fullerton Chapel 주일 1부 예배 오전 9: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목요영성집회: 7:45pm 새벽예배 월-금 5:30,, 토 6:00 **최 혁** 담임목사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117 N. Pomona Ave, Fullerton, CA 92832
T. (657)217-5558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4부예배 오후 1:30(청년 한국어) FAME예배 오전 11:30 (장년 영어) EM 예배 오후 1:30(청년 영어) 새벽 예배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장년부 수요성령기도회 오후 7:30 **박경호** 담임목사
얼바인 침례 교회
하나님의 인재를 양성하는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857-9425 / www.irvinechurch.com

주일 인터넷 생방송듣기 오전 6:30 주일 예배:오전 11:30 목요 예배: 오후7:30 토요 예배: 오후 8:30 초등부 목요예배: 오후 7:30 **우대권** 담임목사
영광빛복음교회
주의 권능, 치료의 광선을 행하고 알리는 교회
14515 Blaine Ave., Bellflower, CA 90706
T.(213) 291-5901 / (714) 833-2568 daekwon.org

주일예배 오전 9:00 &10:30 새벽예배 화~토 5:30, 토 6:00 금요예배 오후 7:30 **김민재** 담임목사
예친교회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친구' 공동체
4221 Rose Dr., Yorba Linda, CA 92886(Worship Center)
T. (714)788-3677 / www.yechinchurch.com
18639 Yorba Linda Bl., Yorba Linda, CA 92886 (교회 사무실)

주일1부예배 오전8:15 주일2부예배 오전10:00 주일3부예배 오전11:45 영어주일예배 오전10:00 유년부.초등부예배 오전11:30 영어중고등부예배 오전11:30 한어중고등부예배 오전10: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5:30, 토,주일 오전6:00 **엄영민**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
열린교회, 주는교회, 키우는교회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891-2029,898-1068 F. 714-373-3097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5 3부찬양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청년부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삼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rcoc.com

주일예배 오전 8: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청년부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임경남** 담임목사
토기장이교회
1808 W.Lincoln Ave., Anaheim, CA 92801
T.(714)234-5338 / www.potterscc.com
E-mail : info@Potterscc.com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조원재** 담임목사
하나님의은혜교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교회가 되자"
14706 Pioneer Blvd., Norwalk, CA 90650
T. (213) 247-7440 / godsgracechurch.org

1등 아메리카 대륙
푸른투어 LA
cst# 212654040
PRT Tour & Consulting

문의전화 (213)739-2222 인터넷예약 www.PRTTOUR.com

뉴저지 본사	플러싱 지사	로스엔젤레스 지사	토론토 지사	서울 지사
(201)313-0899	(718)928-3333	(213)739-2222	(647)686-6000	(02)739-0890
725 Grand Ave #305 Ridgefield, NJ 07657	154-08 Northern Blvd #2B Flushing, NY 11354	3170 W. Olympic Blvd. #A Los Angeles, CA 90006	5467 Yonge Street, Suite 2B Toronto, ON. M2N 5S1	Doosan We've 58 #1238 Jongno-gu, Seoul

여행설계사 데비드강의 여행이야기 AM 1650 매주 화 1:30pm



IVY LEAGUE 2017 명문대 탐방 5박6일 일정

일자	지역	내용
Day 1 화 3월 28일	로스앤젤레스	LAX 공항 출발
	뉴욕	JFK 뉴욕공항 도착 후 가이드 미팅 / 석식후 호텔숙박
		★선택관광: 브로웨이뮤지컬 $180 /1인 부터 (뮤지컬은 프로그램에따라 유동적입니다)
		HOTEL : RADISSON HOTEL PISCATAWAY 또는 동급
Day 2 수 3월 29일	뉴욕 뉴헤이븐	호텔조식 후 뉴헤이븐으로 이동
		★ 예일대학교 방문 : 재학생 안내로 캠퍼스 투어 및 질의 응답 미팅
		★ 연구 조교로 근무하시는 정태현 박사과정 특강 (1시간)
		중식 후 로드아일랜드 주의 프로비던스로 이동
	프로비던스	★ 브라운 대학교 방문 : IVY 가이드와 캠퍼스 투어
	보스턴	보스턴으로 이동 / 석식 후 호텔로 이동하여 체크인 및 휴식
		HOTEL : RADISSON HOTEL NASHUA 또는 동급
Day 3 목 3월 30일	보스턴	호텔조식 후 이동
		★ 하버드 대학교 방문 : 재학생 안내로 캠퍼스 투어 및 질의 응답 미팅
		★ MIT 방문 : IVY 가이드와 캠퍼스 투어
		☐ 보스턴 프리덤 트레일 체험 : 도보 투어
		☐ 170년 전통을 자랑하는 대표적인 재래시장 퀸시마켓 방문
		☐ 차창관광 : 보스턴커먼 – 주청사 – 파크 스트릿 처치 – 벤자민 프랭틀린 동상 등
	뉴욕	뉴욕으로 이동(약 4시간 30분 소요) /석식 후 호텔로 이동하여 체크인 및 휴식
		HOTEL : RADISSON HOTEL PISCATAWAY 또는 동급
Day 4 금 3월 31일	뉴욕 프린스턴	호텔조식 후 프린스턴으로 이동
		★ 프린스턴 대학교 방문 : IVY 가이드와 캠퍼스 투어
		필라델피아로 이동
	유펜	★ 유펜 대학교 방문 : 재학생 안내로 캠퍼스 투어 및 질의 응답 미팅
		※ 중식은 교내카페테리아에서 자유식으로 진행되며, 가이드가 1인 $10 나눠드립니다.
	워싱턴	워싱턴DC로 이동 / 석식 후 호텔로 이동하여 체크인 및 휴식
		HOTEL : SPRINGHILL SUITES BY MARRIOTT 또는 동급
Day 5 토 4월 1일	워싱턴	호텔조식 후 워싱턴DC 시내관광
		☐ 관람 : 링컨 기념관,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 제퍼슨 기념관, 스미소니언 자연사 박물관
		☐ 경유 : 국회의사당(외부), 백악관(외부), 조폐공사, 워싱턴 기념탑 등
		★ 존스 홉킨스 대학교 방문 : IVY 가이드와 캠퍼스 투어
		※ 존스 홉킨스 대학교 방문은 현지 사정에 따라 하루 전날인 4일차 일정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뉴욕	뉴욕으로 이동(약 4시간 30분 소요) / 석식 후 호텔로 이동하여 체크인 및 휴식
		HOTEL : RADISSON HOTEL PISCATAWAY 또는 동급
Day 6 일 4월 2일	뉴욕	호텔 조식 후 맨하탄 관광
		▶관람지역: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35/1인, 자유의 여신상 유람선 $35/1인,
		▶콜롬비아 대학교 방문: 아이비 가이드 캠퍼스 투어
		※ 콜롬비아 대학교 방문은 현지 사정에 따라 3일차에 진행 될수 있습니다.
		■ 경유: 그라운드 제로, 월가, 소호, 차이나 타운, 한인타운, 워싱턴 광장, 그리니치 빌리지, 5번가, 타임 스퀘어, 브로드 웨이, UN본부(외부), 록펠러센터(외부), NYU 대학교 경유 및 차창관광
		JFK 공항으로 이동 / 항공전송 – 투어종료

▶ 상기 일정은 현지 사정에 의해 다소 변경될수 있습니다.

"미동서부 최고의 여행사 푸른투어와 가주교육신문이 함께하는 봄방학 특선"

명품 IVY 리그 5박 6일

$1,399 ▶ 3월 28일 / 4월 4일 [특별출발]
▶ 그외 날짜 수시출발

- 1차, 2차 견학에는 **예일대학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연구 조교 정태현님의 특강일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타사 위탁이 아닌 **푸른투어 동부 본사**에서 진행합니다.

① 재학생 투어 총 3회 〈예일/하버드/유펜〉 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② IVY 전문 가이드와 함께 캠퍼스 투어를 하실 수 있습니다.
③ 3명 이상 출발이 가능합니다.

5박 6일	브라운/예일/하버드/MIT/프린스턴 유펜/존스홉킨스/콜롬비아	▶매주 화/토 $1,399
7박 8일	브라운/예일/하버드/MIT/프린스턴 유펜/콜롬비아(나이아가라)	▶매주 수 $1,499

재학생이 안내하는 생생한 미국생활 탐방
예일대학 연구 조교 정태현님의 특강

1등 아메리카 대륙
푸른투어 LA
PRT Tour & Consulting
cst# 2126540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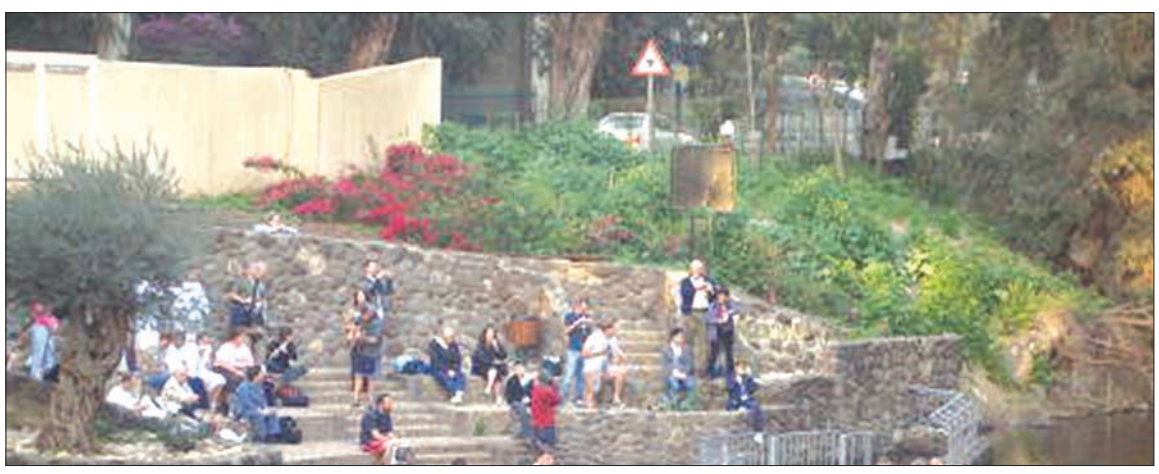
213.739.2222
인터넷예약 www.PRTTOUR.com

무료픽업 가능 : 가든그로브/토렌스/세리토스/가디나/다이아몬드 바

광고상의 모든 컨디션, 가격, 일정, 호텔 등은 현지사정에 의해 예고없이 변경 될 수 있으며, 항공상품은 비수기 기준으로 성수기시요금이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으로 가는 성지순례 이야기(18)

요단강 세례 터(야르데니트 Yardenit)


야르데니트의 세례 모습.



야르데니트의 세례 터 전경.

◈야르데니트로 가는 길

벳샨에서 야르데니트(Yardenit)로 가는 길은 갈릴리 호수로 가는 90번 도로를 따라 북상하면 된다.

16.65마일(26.8km) 거리로 약 25분 정도를 가면 갈릴리 호수 남단에 들어서고 호수 남단 끝 부분에서 좌회전 하면 호수를 끼고 티베리야 시내로 향하는 길이 있다. 갈릴리 호수에 들어서서 우측으로 광대한 호수의 푸른 물결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조금 가다 보면 마치 꼬리처럼 물줄기가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곳이 바로 하류 요단강의 시작 지점이다.

이곳을 지나면 수문이 보이고 수문을 건너 좌측도로로 접어 들면 넓은 주차장이 나오는데 바로 이곳이 1926년 경에 Dganya 키브츠에서 순례객들을 위해 만들어 놓은 요단강 세례(침례)를 만날 수 있다.

티베리야 시내에서 오면 갈릴리 호수의 서안을 따라 남쪽으로 10.75마일(17.3km)을 내려오면 된다. 티베리야는 갈릴리 호수의 중심도시이므로 주로 이곳에서 순례객들은 자고 다음 날 이곳을 방문하기도 한다.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에서는 77번 도로를 타고 티베리야 시내를 통과하여 이곳까지 오는데 29마일(46.7km) 46분 정도가 소요되고, 이즈르엘 평원을 지나 다볼산을 거쳐 하롯샘과 벳샨를 거쳐서 오면 71번 도로와 90번도로를 이용하여 오게 되는데 38마일(61.3km) 53분이 소요된다.

◈야르데니트의 역사

갈릴리 주변의 아름다운 풍경과 풍부한 물은 경작할 수 있는 좋은 땅과 더불어 이민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초기 이스라엘 이민자들은 갈릴리 주변에 키브츠를 만들고 정착하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 제일 오래된 키브츠는 데가니아 (Dganya) 키브츠이다. 이곳은 1925년에 키브츠가 설립되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요단강이 시작되는 지점에서 약 0.62마일(100m) 되는 지역에 수문을 만들고, 순례자들을 위하여 침례(세례)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었다.

◈야르데니트의 세례 모습

오늘날 '야르네니트'라 부르는 이곳에는 매일 수많은 순례객들이 찾아 든다. 사람들은 이곳에서 흰 옷으로 갈아입고 침례행사를 하기도 한다. 어떤 이는 요단강에 발과 손을 담가 보기고 한다. 하늘이 갈라지고 비둘기 같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려오는 모습을 생각해 보



요르단 세례 터.


야르데니트 세례 터.

하실 분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곧 죄인인 우리가 주의 피로 하늘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을 의미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와 요단강을 가를 때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다. 이제 구원의 복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른 것임을 이곳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소리가 하늘에서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해 본다. 자, 이제 요단강 물을 뜨자. 본교회로 돌아가서 이 물로 세례를 주면 의미가 있을 것이다. 물론 물은 같은 성분이지만 말이다. 특별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요단 강물이라는 것에 의미를 부여할 뿐이다.

요단강에서 세례 받은 어떤 이는 "요단강에서 세례 받은 사람 있으면 나와 봐"라며 큰소리치는 것을 보기도 하였다. 요단강에서 자가 안수하는 사람도 있고, 강을 건넌다고 물에 뛰어드는 사람도 있고, 강물에 손을 넣고 불이 나간다고 외치는 부흥사도 보았다. 찬양과 더불어 침례 받은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는데, 침례 후 은혜가 넘쳐서 흐느끼는 사람도 많다.

이곳에서는 주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여왔다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과 하신 일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자.

◈하류에 사해로 들어가기 직전에 진짜 세례터

요르단 암만에서 출발하여 느보산을 둘러보고 이스라엘로 건너오기 직전 혹은 요르단에서 사해를 구경하고 성경의 발자취를 따라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침례)를 베풀었다는 (마3:13~17/요1:28) 베다니 지역을 방문하기도 한다.

필자가 한참 사역하던 1995~2007년 사이에는 베다니가 발굴 중 혹은 개발 중이어서 나 역시 작은 물 웅덩이를 둘러보고 왔을 뿐인데 최근의 소식(2016)은 이곳이 잘 개발되어 순례객들이 요르단 쪽에서 많이 가고 있다고 한다.

요르단 관광성에서 1996년부터 이 지역을 발굴하여 3개의 교회와 세례터를 개발하여 관광지 하였다고 한다. 사실 이곳은 이스라엘과 요르단을 나누는 요단강이 흐르는 곳이고 국경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았던 곳인데, 이제 시대가 변하여 이곳도 역시 관광지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다. 이에 이스라엘에서도 '까스르엘 야후드QASR EL YAHUD'라는 세례터를 개발하여 연중무휴 순례객들에게 개방하고 있다고 하니 이제 진짜 세례 터를 방문할 수 있는 길이 열려서 좋다. 10년 전만 해도 갈릴리 호수 남단 하류 요단강 시작지점인 야르데 니트에서 종교적 행사를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좀더 성경적인 장소에서 이런 행사를 할 수 있다고 고맙다. 중요한 것은 항상 장소가 아니라 말씀대로 이루어 진 것을 믿는 마음이다. 〈계속〉


서병길 교수
임마누엘대학교
캘리포니아신학교


이스라엘과 요르단의 국경 지역에 있는 요단강 세례 터.


이스라엘과 요르단의 국경 지역에 있는 요단강 세례 터 전경.

필자와 함께 가는 영성나들이
이스라엘-요르단
2017년 3월 20일~30일
***문의: 213-505-1583**
***이메일: iskms@hanmail.net**

2017 미주기독 대학박람회

IRUS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
• ABHE 정회원
•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총회장 김선규 목사)
• WKPC(세계한인예수교장로회)인준 신학교
• I-20 발행 및 각종장학제도
• ESL, 학사, 석사, 박사과정
125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 (213)381-0081, FAX: (213)381-0010
www.irus.edu, office@irus.edu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준회원
• 기독교학과(BA), 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석사, 선교학석사, ESL, TESOL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안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목회학박사 과정 신설
• 입학상담: 김시온 목사 T(213)407-4569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 류종길 박사, 이사장 : 김광렬 목사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Fax(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aeuimaster@gmail.com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CHONGSHIN UNIVERSITY THEOLOGICAL SEMINARY
캘리포니아주교육국(BPPE)인준 정식 학위 수여
수시입학(통신가능),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모집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에서 강도사 거쳐 목사 안수
모든 민족국제복음주의 총회에서 목사 안수
총장 : 이동규 박사 학장 : PASTOR YOUNG CHOI
978 S. Hoover St #201, LA, CA 90006
T.(213)386-0300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시, 안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

미주총신대학교
CHONG SHIN UNIVERSITY IN USA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21세기 교회와 세계 선교 사명을 이끌어 갈
사명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2975 Wilshire Blvd.#3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487-1010 e-mail : info@chongshinusa.edu
www.chongshinusa.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TRACS 정회원 인준
특전: Sevis I-20 발행/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장학제도 있음
학사과정: 성경학 학사(B.A in Biblical Studies)
석사과정: 목회학 석사(Master of Divinity)
종교학 석사(Master of Art in Religion)
2660 W Woodland Dr. #200,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솔로몬대학교
땅끝까지 제자를 삼아 복음을 전하자 (마태복음28:18-20)
총장: 백지영 박사 부총장: 브랜트 프라이스 박사
3921 Wilshire Blvd. #400,Los Angeles, CA 90010
Tel. 213-381-7755 Fax. 213-381-5055
http://solomonuniv.org/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ABHE, TRACS, ATS 정회원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온캠퍼스 & 온라인 프로그램
신학, 목회학, 기독교상담학 학사/석사/박사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 388-1000 Fax: 213) 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캘리포니아 두란노 대학 신학대학원
목회학, 신학, 철학박사 California Tyrannus University
BPPE Ed, code 94874, Sc code 22426
CEO 학감 김호 박사
1008 S. Kingsley Dr., Los Angeles, CA 90006
Tel. 213-507-1933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온라인 쇼핑 비지니스
주부, 여자 유학생 환영
주 8~10시간 사용하여 엑스트라 수입을 창출
연락처 T(818)590-6078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Classified AD


중고차 황제 김기형

Family 자동차 새차 맞춤 리스 중고차 매매
$ 중고차 최고가 매입 $ "기본 $700 더 드립니다."
213.453.5900 714.743.1000
933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familyauto.us


한의사랑
한의사 Zo'e 조애
Tel:(213)718-8275
이제마 사상 체질 맥 30년 전문
체질맥, 장부맥, 병맥, 설진
심혈관 질환, 간질환, 중풍, 소화기문제, 내분비문제, 부인병, 고혈압, 당뇨, 부종, 알러지, 신장병, 각종통증, 갱년기, 생리통, 생리불순 (아들 원하시는 분)
2120 W.8th St. #208, LA, CA 90057(8th& Lake St.) (월수토 예약 필수)

주님미디어닷컴 전도용품 및 배너 CD 할인행사
오픈 기념
CD Printing + Papersleeve=$300
환영배너 스텐드포함 $65 (물티슈를 제외한 전 품목 Free Shipping!!!)
미디어선교에 앞장서는 탑미디어에서 귀 교회와 성도님들의 사역과 사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섬기기 위해 기독교 전문 온라인 쇼핑몰인 주님미디어 닷컴을 새롭게 오픈하였습니다. 보다 편리한 구매와 저렴한 가격, 세련된 디자인으로 귀 교회와 성도님들께서 섬기시는 사역과 사업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junimmedia@gmail.com
Call : 323.265.0244
CD,DVD 제작전문, 각종 인쇄, 현수막, 각종 사인(실내외,차량) 제작, 판촉물인쇄 전문
junimmedia.com


시티보험 자회사 CA Lic. #0156071
실버시티보험
메디케어 올해 65세 되십니까?
메디케어 신규보험가입&변경기간 10월 15일 ~ 12월 7일
■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Part C)
■ 메디케어 Part D (처방약)
■ 메디케어/메디칼 (변경기간 상관없음)
■ 메디커넥트 등 무료 상담해 드립니다.
무료상담 213-321-0302 Connie Kim(김 경미)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975 S.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Master Tailor 김병호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 대상 :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 프로 미용인도 OK)
■ 회비 : 월 $10
■ 강사경력 :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 213.392.2323


왕만두 (10개 $10)
팥찐빵
부추교자 (50개 $20)
김치교자
무료배달 ($40이상 주문시)
손으로 정성껏 만듭니다.
인하손만두 626.731.7864

기독일보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삼성통운 SAMSUNG SHIPPING
www.easy2424.com
한국식 포장이사 가능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리프팅 라인·지방분해
최신장비도입
*리프팅 라인 4회 $999
*부분지방 분해 S라인 8회 $999
• 초스피드 다이어트
1달에 7파운드~25파운드 감량
•각종 피부병과 아토피
•습진 화농성 여드름
✓ 손가락 ✓ 발가락 ✓ 마디관절 (류마티스 관절통증, 퇴행성 관절통증, 손톱, 발톱 질환)
*지독한 코골이 증상
• 치질(항문하혈, 통증)
• 독소제거, 혈관 청소
• 갑상선, 당뇨병, 정력제
• 불임증 (자궁혹, 하혈)
• TMJ 턱관절 장애
• 우울증
• 관절염, 다리 쥐 오름
• 원형탈모, 지독한 비듬
• 만성두통, 요통
*쉽게 담배를 끊을 수 있는 약 취급합니다.
치아미백 잇몸 시큰거림 풍치예방
3대째 가업으로 이어온 영선한의원
3달분 $60
배 빼는 숙변약!
먹으면서 체중을 줄이고,
몸 전체에 부종이 빠지는 약
한달 $50
영선한의원 Young Sun Acupuncture & Herbs Clinic
(213)380-7800
각종보험취급 (교통사고 전문 병원)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os Angeles CA 90020(6가와 아드모어)
영업시간 : 월~금:10시~5시/ 토 10시~2시

한국의 맛
우리반찬
KOREAN FOOD
THE BEAUTY OF KOREAN FOOD
최고의 기회
NO MSG
웰빙푸드 전문점
선별된 좋은재료, 최고요리 전문가의 정성어린 손길로 모십니다.

품격있는 캐더링
웨딩 캐더링
교회 행사 캐더링
돌잔치 캐더링
회갑잔치 캐더링
생일상 캐더링

▪ 스페셜 다이어트 푸드
▪ 자연의 맛 그대로 조리된 각종 반찬
▪ 전통 찜요리 (궁중찜, 갈비찜, 코다리찜, 조기찜, 묵은지 등갈비찜)
▪ 웰빙 김밥
▪ 김치류
연말 연시 캐더링 주문 환영
Tel(213)388-0022
356 S. Western Ave. #106, Los Angeles, CA 90020
찾아오시는 길
Western Ave
4TH

●제이슨 송 칼럼

실패를 딛고 전진하기(1)



제이슨 송 교장
새언약초중고등학교

2017년을 시작하며 시리즈로 성공과 실패, 특히 우리 청소년들에게 성공과 실패가 무엇을 의미하며, 학생들이 인생과 학업, 그리고 관계속의 실패를 어떻게 잘 다뤄 성공의 발판으로 만들 수 있는지 나누도록 하겠다.(이 내용은 유명한 저자이자 목사, 그리고 대기업 리더들에게 컨설팅을 제공하는 John Maxwell 목사의 책 Failing Forward: Turning mistakes into stepping stones for success를 정리한 내용임을 밝힌다.)

사람은 누구나 성공과 실패를 체험하며 성장한다. 엄격히 말하자면 실패를 통해 성공하는 방법을 배운다. 어린 아가가 걸음마를 배울 때 엉덩방아를 수 백번 찧어가며, 벽이나 옷장을 붙들며 한 발, 두 발 옮기며 걷기를 배운다.

NCA 학교에서도 킨더가든 학생들이 글쓰기를 배우는데, 학년 초엔 글 자체가 춤을 추지만, 학년 말이 되면 제법 글자체가 예쁘고 읽을 수 있게 된다.

한국 방송 프로에 "달인"이란 프로그램이 있다.

호떡을 기계같이 구어내는 달인, 바느질을 정교히 신속히 하는 달인, 가득찬 음식상을 여러개 한꺼번에 배달하는 달인, 하루에 수만개의 골프공 중 불량품을 기계보다 빨리 골라내는 달인. 딱하고 혹독할 정도로 일을 많이 했기에 달인이 된 것이라 믿는다.

지금은 달인이지만, 이들의 시작은 어떠했을까? 인생에 실패없는 성공이 있을 수 없고, 연습과 실패를 통해 습득하지 않은 기능과 전문성은 없다고 생각한다.

오늘날 우리는 성공, 성공, 성공을 외치며 살아가고 있다. 이민자였던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된 우리 인생의 선배님들, 정말 이민 초기에 많이 고생하셨고, 그래서 그런지 자식들만은 성공해야 한다고 노래를 부르셨다.

또 동양인이 미국에서 성공하려면 학업에 열중해 꼭 박사, 의사, 변호사, 엔지니어 중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셨다.

그런데, 그런 직업을 갖지 못하면 다 실패한 것이고, 그래서 낙오자로 취급받아야 할까?

성공,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성공의 정의가 무엇인가? 돈이나 직위, 직책이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기독교인이라면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성공을 추구해야 한다. 자, 그럼 성공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 존 맥스웰 목사는 많은 사람들을 연구한 결과 다음 같은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첫째, 성공하는 사람은 실패를 바라보는 각도, 그리고 실패를 겪은 후의 반응이 일반인과 다르다고 한다. 성공한 사람은 실패를 겪은 후 좌절에 빠지고, 낙심하고 위축되어있지 않고, 실패를 성공의 밑거름으로 여긴다는 것이다.

둘째, 성공하는 사람은 실패를 성공의 한 과정으로, 또 기회로 받아들인다.

셋째, 성공하는 사람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 준비한다.

넷째, 실패하는 사람은 성공만 체험하고 이루려고 노력한다. 실패를 피하기에 바쁘다.

다섯째, 실패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이 실패에 반응한다.

1. 책임을 회피하고 남을 탓한다. 2. 실패를 반복한다. 3. 앞으로 절대 실패하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4. 미래의 실패를 두려워한다. 5. 종전에 해왔던 방식대로만 일을 처리한다. 6. 과거의 실수로 인해 리스크(모험)를 피한다. 7. "난 낙오자야, 난 실패자야"란 생각을 반복한다. 8. 일을 포기하거나 프로젝트 도중에 하차한다.

이와 반대로 성공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이 반응한다.

1.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진다. 2. 실패한 원인을 파악하고 연구하여 배운다. 3. 실패란 성공의 한 부분임을 깨닫는다. 4. 긍정적인 태도, 자아관을 유지한다. 5. 구식적인 방법과 과거의 습관/패턴을 과감히 접는다. 6. 새로운 모험, 리스크를 택한다. 7. 실패를 통해 무슨 실수를 범했는지, 무엇이 잘못 되었는지 파악하되, 자신을 너무 자책하거나 학대하지 않는다. 8. 끈기를 갖고 꾸준히 최선을 다한다.

2017년을 맞이하며, 성공하는 사람같이 실패에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다. 우리 자녀, 청소년들에게도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한수희 칼럼(17)

핵심은 깨어진 관계의 회복이다



한 수 희 강사
기독교 상담 세미나

복음의 메시지는 관계의 회복을 의미한다.

관계의 회복에는 유대감을 형성하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은 곧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 그리고 우리 자신과 다시 연결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관계는 우리의 가장 기초적인 욕구다.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만드는 것이 바로 관계이다.

하나님과 또한 다른 사람들과 견고한 정서적 연계를 맺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진정한 자아의 모습을 찾을 수 없고, 온전한 인간이 될 수 없다.

수많은 연구 결과가 유대감 형성이 암이나 심장마비, 뇌졸증과 같은 신체적 질병에서 회복하는 기능과도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유대감을 형성하는 능력은 심리적이고 육체적인 건강의 중요한 기초가 된다.

우리의 정서적이고 심리적인 건강은 마음 상태에 달렸으며, 우리의 마음 상태는 하나님 및 다른 사람들과의 유대감의 깊이에 달려 있다. 성경은 오래 전에 이 사실을 기록했고, 과학이 오늘날 이를 증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관계적'해결책이 인본주의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만 두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영적 지도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은 무척이나 위험하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모든 율법을 정리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그 증거이다.

그러한 지도자들은 거룩해지는 과정의 관계적인 측면을 놓치고 있는 것이다. 거룩해진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 그리고 우리 자신과의 관계를 바로 하려 노력할 때 이룰 수 있다. 그 세가지 관계 중 어느 하나라도 깨지면 문제가 발생한다.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늘 굶주린 상태로 살아가며 채워지지 않는 간절한 욕구에 시달린다. 그 욕구를 채워내기 위해 선택하는 방법들에 따라 고립의 진정한 문제와는 얼핏 달라 보이는 다양한 증상을 보이게 된다. 유대감 형성에 실패했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과 심리상태에 대해 살펴보자.

우울증은 슬픔, 무기력, 절망감, 집중력 저하, 식욕이나 수면욕의 비정상적인 증가나 감소를 불러오며 때로는 자살 충동이나 실제 자살 시도로 이어지는 심각한 정신질환이다. 슬픔이나 분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연스러운 감정으로, 애정이 결핍되었을 때 생겨난다.

그런데 우리가 그 자연스러운 감정들을 억지로 억누르려 할 때 우울증이 발생하곤 한다.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 뭔가를 하려는 의욕도 잃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피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밝게 있는 곳에서 더 고립감을 느끼기 때문이며, 그 고립감 때문에 스스로를 더욱 고립시키게 되는 것이다.

고립된 사람들이 느끼는 또 하나의 심리상태는 자기 비하와 죄책감이다.

홀로 고립된 사람은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로 비치기 쉽고, 이들은 자신이 사랑 받지 못하는 이유가 나쁜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해석해 버린다.

스스로 나쁘다는 느낌이 드는 것은, 자신이 뭔가 잘못된 행동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서 죄책감을 느끼고 그 죄책감을 없애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한다.

거듭 잘못을 고백하고, 성경도 읽어 보고, 봉사에 참여하기도 하지만 여전히 용서받았다는 느낌은 충분히 들지 않는다. 문제의 뿌리는 죄가 아니라 고립감과 외로움이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증상은 중독이다.

중독은 진짜 필요한 것을 향한 욕구가 아니라 거짓된 욕망이다. 진정한 자아가 진짜 필요로 하는 것의 대체물이 바로 중독이다.

중독을 치유할 때 가장 중요한 과정은 '거짓된 욕망'으로 변장하고 있는 '진정한 욕구'가 무엇인지를 밝혀내는 것이다. 애착과 유대감이 바로 그 진짜 욕구들 중 하나이다. 진정한 욕구가 사랑으로 채워질 때 우리를 수 많은 중독으로 내몰았던 힘은 사라지게 된다.

모든 중독이 유대 관계의 결핍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경우가 그렇다. 중독은 마약, 술, 섹스, 도박, 음식 등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며, 사회적으로 용인 되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일 중독과 운동 중독, 심지어 종교 활동도 중독의 한 형태일 수 있다.

편집증 역시 고립감으로 인해 나타나는 증상 가운데 하나이다.

편집증은 왜곡된 사고방식의 한 형태로, 비합리적인 이유 때문에 사람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증상이다.

내면의 고립이 너무 깊어지면 사람은 큰 고통을 느끼게 되고 그것이 겉으로 표출된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해치려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고 사람을 신뢰하지 못한다. 그런 까닭에 사람들을 피하고 자신을 더욱 고립시키게 되는 것이다.

편집증에 걸린 사람들에게 '생각을 바꾸라'고 아무리 말해도 소용이 없다. 문제의 원인은 생각이 아니라 고립이고, 고립은 아주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디도를 보내셔서 바울을 위로하셨던 것처럼(고후 7:5~7) 우리는 인간 관계를 통해 어루만짐을 경험한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은 상처 받은 이들에게 다른 사람의 도움은 필요 없다고 말하기도 한다.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고 기도하며 말씀만 읽으라고 한다. 이는 마치 낙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시려고 자신의 몸을 친히 보내시는 하나님의 손을 잘라 버리는 일과도 같다. 그러나 누군가가 아무리 부족함 없는 사랑을 준다고 하더라도, 상처 받은 사람들 또한 본인 스스로 사랑의 필요를 느끼고 그 사랑에 반응해야 한다. 그렇지 않는 한 그 사랑은 자라나지 못한다.

미주 제 63차 성경완독집회
2017년 1월 23일(월)~26일(목)

3박 4일

성경 66권 완독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자"



새해, 첫달 성경66권으로 무장하여 승리하는 해

신구약 66권 전권을 3박 4일(약 50시간)에 통독하는 은혜와 감격을 체험합시다.
성경읽기가 재미있고, 성경을 암송하고 싶어지며, 말씀에 사로잡히게 되는 훈련입니다.
본 성경통독과 암송훈련을 통하여 신앙생활에 새로운 기쁨과 능력을 힘입게 될 것입니다.

숙식 제공
집이 가까운 분은 집에서 왕래 가능

일 시 2017년 1월 23일(월)~26일(목)
장 소 갓스웰연합교회 (담임 : 이희철 목사)
904 E. D Street Ontario. CA 91764
Tel : 909.983.0994 / Cell : 909.268.4279
주 최 미주요한선교단(대표 : 안성기 목사)
The John's Mission USA
참가대상 교역자, 선교사, 제직, 평신도, 학생 및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

참가비 1인당 $70(숙식비 포함), 부부 $100
등 록 1월 23일(월) 당일 오전 9시~10시
준비물 성경(개역)과 찬송, 세면도구, 담요 또는 슬리핑백
개회예배 1월 23일(월) 오전 10:00
수료식 1월 26일(목) 오후 6:00
특 강 성경통독 세미나 – 성경을 재미있고 은혜롭게 읽는 방법
성경통독 세미나 – 성경을 마음에 간직하고 새기는 방법
T-QT 세미나 – 다윗의 경건생활 모범

교회 찾아오시는 길 Tel : (909)983-0994



904 E. D Street Ontario. CA 91764

주최 : 말씀사랑운동 미주요한선교단(대표:안성기) Tel:(909)983-0994

기/독/일/보와 함께하는

북새통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잠언 8:10)

책으로 통하는 새로운 세상

신간 추천

선교적 교회와 목회행정
박운암 | CLC | 232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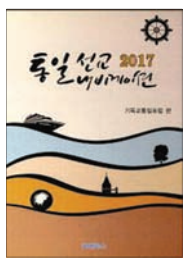
이 책은 선교적 교회론의 필요성과 선교적 교회론을 다룬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목회현장에서 어떻게 선교적 교회를 세워나갈 것인가 하는 방안을 목회행정과 접목시킨 실천적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 책은 선교적 교회를 목회의 현장에서 어떻게 세워나갈 것인가 고민하는 목회자들에게 통찰력을 제공할 것이다. 목회행정은 선교적 교회로의 전환에 꼭 필요함을 알게 해준다.

지옥의 실체와 하나님의 열쇠
메어리 캐더린 백스터 | 순전한나드 | 240쪽



마귀는 지금도 하나님이 가장 높이시고 사랑하시는 인간을 미혹하려 한다. 마귀는 우리가 창조주께 반역하고 그분으로부터 멀어져서 결국 심판받고 지옥에 떨어지기를 바란다. 본래 지옥은 마귀와 그의 타락한 사자들을 위해 마련되었다. 하지만 이제 지옥은 하나님을 거절한 모든 이들의 종착역이 되었다. 이 책은 지옥으로 이끄는 사탄의 미혹과 속임수가 무엇인지 알려준다.

통일선교 내비게이션(2017)
지음 | 포앤북스 | 333쪽



이 책은 기독교통일포럼의 2016년 월례포럼 발제물과 회원들의 원고를 묶은 것으로서 남산감리교회의 후원으로 발간되었다. 기독교통일포럼은 한국 교회가 민족교회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연합하여 평화통일을 주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며, 통일선교의 전략을 개발하고 그역량을 강화하며 전문적인 지혜를 나눔으로써 통일을 이루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야기 성경관통: 신약편
이대희 | 엔크리스토 | 228쪽



성경을 술술 읽으려면 성경의 핵심 내용을 붙잡고 이야기식으로 드라마를 보듯이 성경을 읽는 방법이 좋다. 적어도 한눈으로 성경을 관통하기 위해서는 핵심주제를 잡고 그것을 거대한 하나님의 드라마를 보듯이 흐름을 타고 가면 어려운 성경이 쉽게 보이면서 점점 말씀의 즐거움에 빠져 들수 있다. 이 책은 성경을 보다 쉽고 재미 있게 잘 읽도록 도움을 주는 안내서로는 제격이다.

구입문의
LA : 조이기독교백화점 T. (213)380-8793
LA : 기독교서적센타 T. (800)669-0451
OC : 생명의 말씀사 T. (714)530-2211

REVIEW

현재 내 人生의 '방향'은 어디인가?

성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준다



내 인생의 목적 하나님
김남준
생명의말씀사 | 256쪽

사도 베드로는 고난과 위기 가운데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며 그들을 '나그네'라고 부른다. 또 여러 믿음의 선진들은 자기의 소유와 부가 있을지라도 자신을 향해 나그네요 이방인이라 믿고 살았다.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자는 이 땅이 진정한 고향이 아니라 영원한 본향이 있으니 그곳을 바라보라는 의미이다. 비록 이 땅에서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파도가 밀려오고 우리를 찔러 괴롭히는 가시들이 있지만,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충분한 이유와 소망이 있음을 가르쳐 준다.

실제 성도는 이중 국적으로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태어나면서 한국에 사는 사람으로, 미국에 사는 사람으로 이 땅에 존재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 지역적 국적과 함께 영원한 국적을 하나 더 갖게 되는데, 바로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가르쳐준다. 그만큼 성도는 몸은 비록 이 땅에 있지만, 그는 하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한다.

그러나 부정할 수 없는 것은 인생의 굽이마다 낙심이 되고, 심지어 믿음마저 흔들리는 경우가 있다. 이 산을 넘으며 안도하다가 이내 또 다른 산이 나타나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진정한 삶의 목적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목표는 잠시의 환란도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하게 해 주고, 지금의 슬픔도 삶의 자양분이 되게 만들어준다. 이 분명하고 확실한 목표는 우리의 인생을 사랑하게 만들어주고 바른 길을 걸어가는 동기가 된다.

이 책은 제목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성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호소하고 있다. 책은 총 4부로 구성됐는데, 1부 '하늘보다 높으신 나의 하나님'에서는 인간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다. 2부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에서는 타락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살 수 있었는가에 대한 설명이다. 3부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에서는 역경 가운데서도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리고 4부 '우리의 사랑이신 하나님'에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설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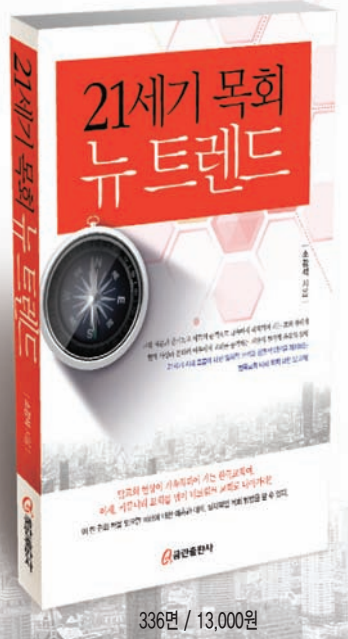
즉 이 책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전체와 떼려야 뗄 수 없는 분이시고, 신자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 속에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고 있다.

이 책을 보면 저자가 인생을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있고, 특별히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을 얼마나 경험했는지 느낄 수 있다. 또 인생의 제일 목적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기계적이 답이 아니라 그 답이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지를 알게 해준다.

방영민 목사
크리스찬북뉴스 편집위원

교회 내분과 반기독교 세력의 공격으로
급속하게 파괴되어가는 교회 생태계
현대 사상과 문화의 배후에서 교회를 공격하는
사탄의 전략과 음모의 실체
21세기 시대 흐름에 대한 입체적 분석과
창조적 대안을 제시하는
한국교회 미래 목회 대안 보고서!

21세기 목회 뉴 트렌드



336면 / 13,000원

소강석 지음

탈교회 현상이 가속화 되어가는 한국교회여,
이제, 커뮤니티 교회를 넘어 네트워크 교회로 나아가라!

이 한 권의 책을 읽으면 미래에 대한 목회 예측과 대안,
실제적인 목회 방법을 알 수 있다.
다가오는 2017년을 '21세기 목회 뉴 트렌드'와 함께 시작하세요!

맨발의 소명자 소강석 목사



1995년 '월간 문예사조'로 등단하여 한국문인협회 회원으로 활동중이며 새에덴교회 담임목사로 시무하고 있다.
수많은 세미나와 부흥회 인도를 통해 다음세대를 이끌어갈 차세대 대표주자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2006 한국기독교출판 최우수상, 마틴 루터 킹 국제평화상, 한국기독교문화대상, 천상병문학대상을 수상한 바 있고, 대한민국 국민훈장 동백장,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상, 대한민국 보훈문화상, 자랑스러운 한국인상을 받았다. 일사각오의 목양정신과 아름다운 순정에서 나오는 그의 집필 활동은 많은 독자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함께 읽을만한 소강석 목사의 또다른 저서



거룩의 재발견
317면 / 13,000원



생명언어
317면 / 13,000원



안나가? 가나안!
240면 / 11,000원



파도를 일으키는 바람을 보라
256면 / 10,000원

쿰란출판사 • 한글인터넷주소 : 쿰란,쿰란출판사 • 홈페이지 www.qumran.co.kr
• 서울 종로구 이화동 184-3 • TEL : 745-1007(대)

'킹제임스' 성경…한국 최초 전래 성경이었다

지금부터 정확히 200년 전인 1816년 9월 4일, 영국 선박들이 충남 서천군 마량진에 도착하여 이 땅에 처음 주고 간 책이 바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2016년 9월 국내 최초 성경 전래지 기념관이 서천군에 문을 열었다.

많은 방문자들이 기념관을 다녀가면서 그 안에 비치된 영어 킹제임스 성경과 관련 자료들을 보면서 의문을 갖게 됐다. 사이버 공간에서 킹제임스 성경이 심지어 이단이라는 소문이 떠도는 것과 달리, 서천군이라는 공공기관에서 만든 기념관의 자료는 킹제임스 성경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알려진 우수한 성경임을 보여 주기 때문이다 (참조: 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1066072&thread=09r02).

21세기를 살아가는 한국 그리스도인들도 이제는 한국과 전 세계의 성경 역사를 알 필요가 있다.

하나님의 은혜로 138년 전에 우리나라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되었다. 복음 선포를 위해 처음에는 외국인 선교사들이 한국인 조력자들의 도움을 받아 성경을 한국어로 번역했고, 그 결과 개역성경이 출간되었다. 개역성경은 문장이 간결하고 우아하며 웅장하여 성도들에게 사랑을 받았고, 마치 영어권의 킹제임스 성경 같이 한국의 독보적인 성경이 되었다.

개역성경은 보통 사람들의 감정과 우리 특유의 문화를 잘 반영하였으며 기품 있는 문체와 운율 등으로 읽는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심하고 구원의 감격을 맛보았으므로 이 성경이 한반도의 신앙인들에게 남긴 소중한 자취는 영원토록 기억될 것이다.

성경이 하나뿐인 줄 알던 한국 교계에 1990년대 중반 이후로 영어 킹제임스 성경과 그것의 근간이 된 히브리어 마소라 본문(구약)과 그리스어 공인본문(신약)의 권위와 정확성 등이 소개되면서, 성경의 신학적/사본학적 근거를 살펴볼 필요가 생겼다. 그때까지는 개역성경만으로도 특별한 불편이 없었고, 다른 대안도 없었다.

하지만 21세기를 맞으면서, 500년 전 종교개혁 시대처럼 기존의 획일적 신앙생활 패턴에서 벗어나, 양심의 인도에 따라 진리를 추구하면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려는 무리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미 한국에서는 킹제임스 성경 운동이 1990년대에 일어났다. 국내 최초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출간한 곳은 말씀보존학회인데, 기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과격한 언행을 보이며 재창조 및 구약 성도들의 '믿음+행위'에 의한 구원 등을 주장하다 장로교 대형교단들에 의해 이단 판결을 받았다.

이는 당시 판결문이 보여주듯 성경이나 교리보다도 비상식적 처신이 문제가 된 판단이었지만, 이 일로 '킹제임스 성경=이단'이라는 등식이 교회 안에 형성돼 왔고 지금도 사이버 공간에서는 킹제임스 성경을 거론하면 이단 취급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신앙의 선조들이 가장 많이 사용해 온 성경을 양심에 따라 선택하고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 믿는 믿음 자체를 이단이라 규정하는 일은 아마도 한국에서만 일어나는 낯선 일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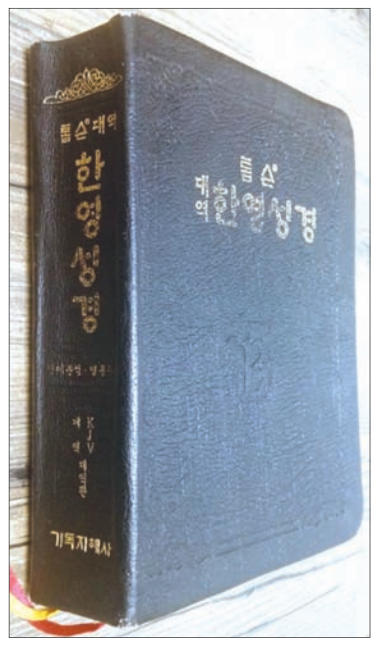
어떤 한 단체가 과격한 믿음과 비상식적인 언행으로 이단 판결을 받은 것과,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이 이단이 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이다. 그러므로 신앙의 자유에 입각한 바른 성경관을 위해 킹제임스 성경에 관한 팩트와 진실을 알 필요가 있다고 국내에서 킹제임스 성경 운동을 하는 신앙인들은 다음과 같이 외치고 있다.

1. 1611년에 발간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인쇄되고 팔리고 다른 나라 성경 번역의 대본이 된 성경이다.

2. NASB, NIV, NKJV, ESV 등의 현대 역본은 1980년 이후부터 영어 성경 시장을 잠식하기 시작하여 현재는 킹제임스 성경과 현대 역본들이 각각 50% 정도씩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 1611년부터 무려 370년 동안 영미권에서는 우리나라 개정개역 성경처럼 유일하게 킹제임스 성경이 사용된 것이다.

3. 이 기간 모든 교회의 신학과 교리가 킹제임스 성경에 의해 정립되었고, 오대양 육대주의 복음화도 킹제임스 성경에 의해 이루어졌다.

4. 킹제임스 성경은 마르틴 루터, 요한 칼빈 등의 종교 개혁자들이 사용한 성경과 동일한 성경이며, 청교도들의 모든 고전들은 한결같이 킹제임스 성경으로 기록되었다.



기독지혜사의 콤슨대역 한영성경.

5. 웨슬리, 휫필드, 에드워즈, 무디, 스펄전, 캠벨 몰간, 로이드 존스 등의 설교자들, 그리고 매튜 헨리, 반즈, 재미슨 파우셋 등의 유명한 주석들도 모두 킹제임스 성경으로 기록되었다.

6. 지금도 미국의 근본주의 대학들(밥존스, 펜사콜라 크리스천 칼리지, 테네시 템플, 기타 보수적 침례교 대학들)은 예배와 교육에 오직 킹제임스 성경만을 사용한다.

7. 영국의 옥스퍼드 대사전은 킹제임스 성경을 단순하게 'The Holy Bible'로 기록한다.

그들은 "한국의 신학대학에서 조금이라도 교육을 받고 성경 역사 등을 연구한 사람이라면 위의 진술에 틀림없음을 인정할 것"이라고 한다. 비록 말씀보존학회가 킹제임스 성경에 부정적 인상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 해서 킹제임스 성경에 관한 역사의 진실을 왜곡하거나 부정하는 것은 진리를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에게는 합당치 않은 일이라는 것.

지금은 어느 때보다 미래 세대들에게 올바른 역사를 알려주는 것이 중요한 때이다. 이것은 성경 및 성경 역사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일 터인데, 이들의 주장이 단지 소수의 특별한 주장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국내에 킹제임스 성경 이슈가 시작되기 전, 이미 기독지혜사는 1989년에 〈톰슨대역 한영성경〉을 출간하였다.

미국에서는 1900년대 초 〈스코필드 참조 성경〉과 〈톰슨 체인 참조 성경〉이 가장 많이 팔렸다. 물론 이 성경들은 다 킹제임스 성경을 본문으로 다양한 관주와 사전 등을 탑재해 많은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었다고 평가받고 있다.

1,800여 쪽으로 구성된 〈톰슨대역 한영성경〉의 한글 본문은 개역성경이고 영어 본문은 킹제임스 성경이며, 여기에는 관주, 66권 책 설명, 매 쪽 하단의 주석이 있고, 특히 부록에는 'KJV(King James Version)의 이해'라는 글이 들어 있다. 이 성경은 1980년대 말, 하나님의 말씀을 갈구하던 수많은 한국 성도들에게 신선한 생수를 제공한 성경이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한국에서 킹제임스 성경 운동이 시작된 것은 1990년대 이후이다. 따라서 국내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서 나온 문서들은 대부분 1990년대 중반 이후에 출간된 것들이다. 이렇다 보니 검증되지 않은 주장이라는 의문도 제기되곤 한다. 다음은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한 〈톰슨대역 한영성경〉의 간행사와 부록 'KJV의 이해'에서 인용한 것이다.

◈톰슨대역 한영성경 간행사

주지하다시피 영어 성경이라도 수십 종에 이르는 역본이 있어서 역본 선정에 고심하였는바, 각계의 자문을 얻어 흠정역(Authorized Version, 권위역)인 KJV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KJV는 현대의 역본이 지니지 못한 그윽하고 높은 문학적 향취와 영미 문화사에 기여한 전통적 권위, 그리고 신학적 정통성과 아울러 한글성경 번역에 있어서도 KJV가 중요 원전의 하나로 활용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혹자는 17세기경 기록된 KJV의 영어를 낯설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영미 문화권에서는 공식 예배용 성경으로 거의 모든 교회가 KJV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단적으로 KJV 영어의 현대성을 입증해 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영문학의 원형이라 할 수 있는 KJV를 심층적으로 이해함으로써 피상적 영어 이해를 극복한 영어의 진수에 접근하는 것은 물론, 그로 인하여 성경 본문의 이해에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을 것입니다.

◈톰슨대역 한영성경 부록: KJV의 이해

1. KJV 번역 과정과 그 배경: 한 번도 교회나 왕에 의하여 공식적으로 인가를 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상의 어떤 권위자가 인정한 것 이상으로 공인되어 영국인들에게 널리 보급됨.

2. KJV 영어와 현대 영어: 영문학을 전공하지 않은 일반 독자들에게 1600년대 초에 완성된 KJV 영어는 다소 낯선 느낌이 없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본장에서 정리한 인칭 대명사의 형태와 몇몇 동사의 어형 변화를 숙지한다면 '영어 산문이 낳은 가장 뛰어난 불후의 저작'이라 일컬어지는 KJV를 이해하는 데 있어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3. KJV와 영미 문화: 현대에도 그가 기독교를 믿건 안 믿건 간에 영미의 문학가는 성경을 모르고는 문학 활동을 영위할 수 없으며, 이 사실은 이미 성경 자체가 가장 위대한 문학의 극치이며 나아가 서구 사상의 근원지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성경을 영미 문화권에 결정적으로 정착시킨 역본이 바로 KJV였던 것이다. … 그러나 그 판단이야 어찌됐든 과거 영미 문화가 KJV 등으로 대변되는 기독교적 영향 아래 교육을 도모해 왔음은 엄연한 사실이다.

4. 성경 통일의 지표: 성경의 내용 번역은 물론 신학 용어 번역에 있어 만인이 수긍할 수 있는 기본 역본이 없다면 상당한 혼돈과 분파(分派)를 초래할 것이다. 그런데 다행히 KJV라는 걸출한 역본이 있어 1611년 이래 수백 년 동안 성경 역본과 신학의 기본 용어를 제공하는, 만인이 수긍하고 공인하는 기본 자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왔는 바, 이점에 있어 KJV의 공헌은 잊히지 아니할 것이다. 상술하면 KJV는 영어는 물론 세계 각 나라 언어로 성경이 번역될 때 참고가 되는 제1의 통일자료로서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영어의 세계적 발흥과 아울러 KJV의 내적 우수성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이다.

이런 객관적 증언을 통해 한국의 킹제임스 성경 사용자들은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아무런 문제도 없음은 물론, 오히려 가장 위대한 성경임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비상식적이며 과격한 언행에 의해 말씀보존학회가 이단 판정을 받은 뒤 킹제임스 성경 자체가 덩달아 이단 성경처럼 비춰지는 현실이 더욱 안타깝다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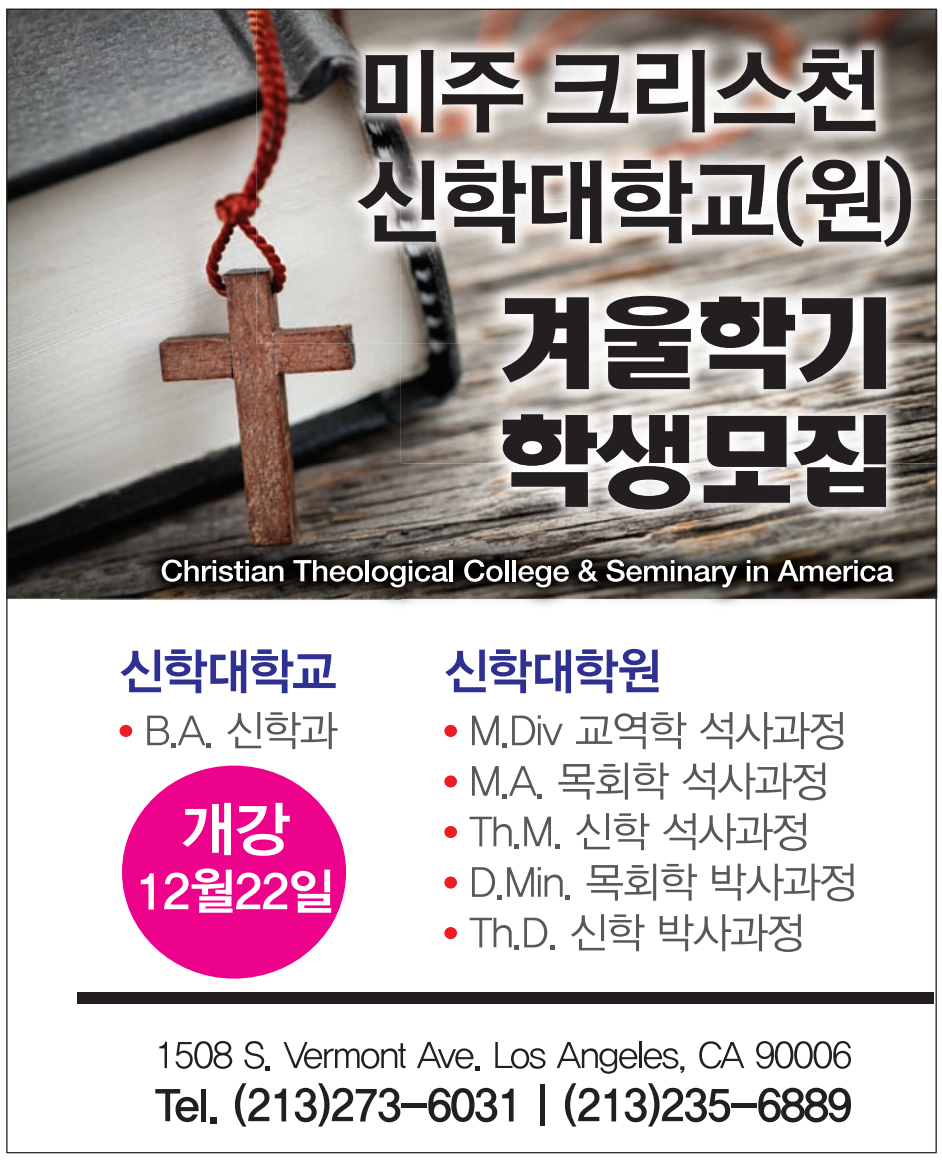
사실 상식적으로 온건하게 이 최초의 권위역 성경을 취급하고 연구, 번역하는 일은 돌출 행동이 아니라 개역성경과 함께 교계의 바른 신학과 교회 부흥에 기여할 수 있는 매우 이로운 시도이자 기본으로 돌아가는 새 바람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올해는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다. 종교개혁의 핵심은 프로테스탄트들의 영혼과 믿음에 끌 수 없는 불을 붙인 종교개혁 본문 성경-에라스무스, 루터, 틴데일, 제네바, 킹제임스 성경 등-으로 돌아가는 것일 수도 있다. 좋은 전통은 유지하되 새롭게 할 것은 과감히 바꾸는 일이 필요한 시대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기독교의 격이 땅밑으로 추락한 이 땅에도 새로운 종교개혁의 물결이 일어나야 할 것이다.

이대웅 기자

북한간부의 하나님을 만나기까지와 순교한 스토리
-우리들의 회개와 동족들의 마음을 얻어 통일의 꿈을 줄 두 권의 책-


• 구입: 미주두란노와 기드온동족선교회 ($20/권당)
• 문의: (425) 775-7477, www.gideonbrothers.org
gbmwusa@gideonbrothers.org (온라인주문가능)
• 주소: GBMW (체크오더명과 우편수취명 동일)
16825-48th Ave, W. #345 Lynnwood, WA 98037

신학대학교
• B.A. 신학과
개강
12월22일
신학대학원
• M.Div 교역학 석사과정
• M.A. 목회학 석사과정
• Th.M. 신학 석사과정
• D.Min. 목회학 박사과정
• Th.D. 신학 박사과정
1508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6
Tel. (213)273-6031 | (213)235-6889



A newspaper of reconciliation led by the Holy Spirit

CHRISTIANITY DAILY

SUBSCRIPTIONS:
Don't miss out on the news!
To subscribe,
please e-mail us at
christianitydaily@gmail.com.

Tel. 213-739-0403 www.christianitydaily.com THURSDAY, January 19, 2017 Vol. 85

'Channel Your Passion for Overseas Missions Through Teaching'

BY JUNHYEONG KIM
TRANSLATED BY RACHAEL LEE

Those who dream of becoming the next Horace Underwood will be gathering together in one place in February of next year. PAUA (Pan Asia Africa & America Universities Association), an association of universities in Asia, Africa, and South America, will be hosting a conference in Southern California to mobilize people to participate in mission work through education by working as professors in one of PAUA's universities.

Recently, PAUA's leaders visited Los Angeles and introduced the details of the 10th PAUA conference to take place from February 1-4, 2018, with Fuller Theological Seminary as a co-host.

Currently, 17 universities are a part of PAUA, and most are schools established by Koreans. These schools are not only formally accredited schools within their respective countries, but some are also ranked among the most prestigious schools in those countries. The universities include National Polytechnic Institute of Cambodia (established in 2005; 2,860 students enrolled), Huree Universit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stablished in 2002; 1,719 students enrolled), Ulaanbaatar University (established in 1995; 3,521 students enrolled), and KUMI University in Uganda (established in 1999; 1,050 students enrolled), among others. These universities are staffed with administrative staff and professors who are not only quality professionals in their fields, but also raise their own funds to work in these universities.

PAUA has been networking with these universities and cultivating unity and communication among them. It has also helped the institutions share educational resources amongst one another. The association also provides research and training programs to continue cultivating high academic standards while maintaining the universities' identity as Christian institutions. The presidents and professors of the universities also gather together once each year to discuss the direction, future, and strategy of mission work through education.

Though most of the conferences in the past have taken place in one of the universities in the association, this year, the conference will take place in the U.S. One of the reasons behind the decision is to mobilize more people. Most of the universities in the various countries are in need of professors who are able to speak English, and Korean Americans are already prepared in that area.

Those who wish to apply as professors of specific majors must have a master's or doctoral degree in that major, but those who want to teach English or Korean are eligible to apply with only a bachelor's degree. Other positions such as those in administration, counseling, IT, libraries, and in lower education such as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are also available.



The Grace Winter Conference took place at Grace Ministries International (GMI) from January 6 to 7. (Photo: Grace Ministries International)

Grace Winter Conference Encourages Young People to Live Out Their Calling

BY RACHAEL LEE

Some 350 college students and young adults gathered at Grace Ministries International (GMI) from January 6 to 7 for the church's Grace Winter Conference, which was hosted in hopes to help young people live out their calling for God's glory, according to organizers.

"We're trying to achieve significance, but we're after it in the wrong way," said Samuel Han, college pastor at GMI and the main organizer of the conference. "We're trying to do it through our career, but that was never the calling of the believer."

Han said that the hope behind the conference is to help young people through the anxiety that comes with trying to determine their direction in life.

"Millennials have this anxiety of, am I doing something that matters?" Han continued. "Am I doing what God wants me to do?"

The idea to help young people with this issue of 'calling' was "something that's been on my heart for a long time," Han explained, but he found that the vision behind it resonated with his college students as well as other local church pastors in the area. After deciding to host the conference, members of GMI's college ministry raised $20,000 to fund the conference, and several pastors in the Orange County region gathered together prior to the conference for prayer meetings. Sa-Rang Community Church, Ekko Church, and Thanksgiving Church were among the other local churches that were represented at the conference.

Speakers included individuals in various career fields, such as Jennifer Fitzgerald, the mayor of Fullerton; KevOnStage, an entertainer; and Laura Izumikawa, a photographer. Zack Curry, executive pastor of Jesus Culture Sacramento; Dave Gibbons, founding pastor of Newsong Community; Bryan Kim, founding pastor of Ekko Church; and Eddie Park, author and teaching pastor at Ev-Free Fullerton, were also featured as speakers during the conference.

Organizers hope to make the conference an annual event at the beginning of each year.

"We just want people to come to this conference, after a grueling year of disappointments and letdowns, to just come and be refreshed and renewed," Han said. "We want to create a place where, at the beginning of each year, young people can receive hope and encouragement."

Theologians Gather in Southern California to Discuss the 'Task of Dogmatics'

BY RACHAEL LEE

For the fifth time, theologians from Southern California and across the world gathered in the West Coast for the annual 'Los Angeles Theology Conference' cohosted by Zondervan, Biola University, and Fuller Theological Seminary. This year, the conference took place at Biola University from January 12 to 13. The two institutions take turns hosting the conference each year.

The conference has explored various theological topics over the years and have featured speakers from different theological backgrounds. Some topics that have been discussed include Christology in 2013, the Trinity in 2014, and the atonement in 2015, and speakers included George Hunsinger from Princeton Theological Seminary, Katherine Sonderegger from Virginia Theological Seminary, Thomas McCall from Trinity Evangelical Divinity School, and Michael Horton from Westminster Seminary in California.

This year's conference focused on the theme of "the task of dogmatics," and featured Kevin Vanhoozer from Trinity, Michael Allen from Reformed Theological Seminary, Henri Blocher from Faculte Libre de Theologie Evangelique, Katherine Sonderegger, and Scott Swain from Reformed Theological Seminary as plenary speakers. Ten others were also featured as breakout session speakers.

"These are high level academic practitioners, doing cutting-edge systematic theology," said Fred Sanders of Biola's Torrey Honors Institute, who is also one of the main organizers of the event. He added that despite the differences across denominational lines, "we have a lot of common causes and interests," including, "Is theology done well?"

Sanders said that another aspect of the conference that makes it enriching is the fact that the theologians come from "different contexts of formation."

"If you think about a Baptist and a Presbyterian theologian, not only are there fights you can pick — let's talk about water baptism, and immediately you've got a fight. In addition to that, there's a rich Baptist theological formation that someone from, let's say, Gateway Seminary, they come from a Baptist theological formation that makes them who they are, their connections, the books they habitually read, the way they habitually argue. That's all there. And then we bring the Presbyterians in. Same thing — they've got their own cultural formation."

"It's the richness of that dialogue and the different resources that makes this conference so enriching," said Sanders.

Another benefit that the conference has brought about, Sanders added, is that it provides a space through which the theological community in Southern California can meet.

"It's nice that, in our fifth year, I know people who have come all five years," he explained. "There's a bit of a Southern California theological community that has formed here."



Kevin Vanhoozer was among the speakers at the LA Theology Conference which took place at Biola University from January 12 to 13.

Over the past five years, and this year's conference included, the gatherings have consistently seen some 150 in attendance, and a total of 75 theologians have spoken and submitted papers at one or more conferences. A book with the papers submitted at each year's conference is also published every year, several months after the conference is concluded. The conference takes place in January each year, and the book from that conference is published by October the same year.

Milal Mission Gives $138,600 in Scholarships to 95 Students

BY JUNHYEONG KIM
TRANSLATED BY RACHAEL LEE

As Milal Mission has awarded $138,600 in scholarships in 2017, the total amount that the ministry has given in scholarships since 2001 has exceeded $2 million, amounting to some $2,097,000.

Every year, Milal has gathered funds through a fundraising night and through its supporters, giving scholarships to students with disabilities. This year's scholarship award ceremony took place at Thanksgiving Church on January 16 at 11 AM.

"If you believe God exists, seek Him," Young Gil Kim, the senior pastor of Thanksgiving Church, said at the worship service which took place right before the award ceremony.

"The fact that, even in difficult circumstances, the funds for this Milal scholarship are prepared wholeheartedly each year, supporting and encouraging countless students with disabilities, is an act of true faith in God," Kim added. "I hope that the scholarship recipients would have greater faith, study hard, and carry out amazing works for God and for the world."

This year, 11 students with disabilities received $3,600 each in scholarships, and the 'Ggoom-Na-Moo Scholarship' was given to 37 students, who were given $1,100 each. Scholarships of $2,000 each, given with the support of J&J, were awarded to two students. Ten students residing in South Korea received $1,000 in scholarships each, and 10 students living in third-world countries also received scholarships for the same amount. Scholarships to cultivate leaders in ministries aiding those with disabilities were given to 15 individuals, who received $1,500 each. With these and other awards, a total of 95 individuals received scholarships, totaling to $138,600.



Milal Mission's scholarship award ceremony took place on January 16. (Photo: Milal Mission)

"We're grateful to God that, through the love and support of so many, 95 students with disabilities were able to receive the benefit of scholarships," Milal stated. "We hope that scholarship recipients would receive even greater hope and vision as they dedicate themselves to their studies."

Local Churches and Ministries

Christianity Daily
A ministry through journalism
For questions about advertising and donations
T.(213)739-0403 F.(213)402-5136

Sunday Celebration Services: 9 AM & 11 AM
Wednesday College Fellowship: 7 PM
Pastor Justin Kim
Bethel English Church
18700 Harvard Ave, Building C, Irvine, CA 9261
T. (949) 385-3051 / www.ocbethel.com

Sunday Services: 9:30 AM & 11:30 AM
Sunday School: 11:30 AM
College Group Meetings: Fridays at 6 PM
Pastor Sung Chang
Charis Mission Church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www.charis.church

Placentia Site Sunday Services: 10 AM
Artesia Site Sunday Services:
11:30 AM, 12:45 PM
Pastor Harold Kim
Christ Central of Southern California
Artesia: 11841 178th St, Artesia, CA 90701
Placentia: 500 Bradford Ave, Placentia, CA 92870
T. (562) 246-0363 / www.christcentralsc.com

Black Christians More Likely than White Christians to Consider Spiritual Life in Context of Community, According to Study

When it comes to personal spiritual growth and discipleship, black Christians are more likely than their white counterparts to consider those aspects in relation to community, according to a recent Barna Group study.

The study found that black Christians were more likely than white Christians to prefer or already be engaged in community-based spiritual growth such as mentorship and group studies. For instance, 38 percent of black Christians said that they are currently being mentored and discipled by another Christian, as opposed 19 percent of white Christians. Black Christians (18 percent) also were more likely to prefer "group-based discipleship" than white believers (4 percent). In contrast, white Christians were more likely to prefer being discipled by themselves (39 percent), a slightly higher percentage than that of black Christians (31 percent).

Black believers were also more likely to say that their spiritual lives influence others around them. White Christians (42 percent) were more likely to say that their spiritual lives are "entirely private," as opposed to 32 percent of black Christians. More black Christians believe that their "personal spiritual lives have an impact on broader society" (46 percent), while 27 percent of white Christians say the same, according to the study. Black Christians were also more likely to believe that their spiritual lives have an impact on their relatives (52 percent, as opposed to 35 percent of white Christians) and their friends (47 percent, as opposed to 36 percent of white Christians).

White and black believers responded in similar proportions that their friendships are "valuable to their spiritual journey" (43 percent of white Christians, 41 percent of black Christians).

However, black Christians were more likely to say that "'negative peer relationships' pose a major obstacle for people's growth as disciples" (73 percent) than white Christians (48 percent), the study showed. Black Christians were also more likely to say that their friends were "not too valuable" or "not at all valuable" to their spiritual journey (26 percent, as opposed to 14 percent of white Christians).

Meanwhile, the study also examined other aspects of spiritual development, such as how white and black Christians define the term "spiritual progress," and the term "discipleship." The study also revealed differences in the two groups' views on spiritual education.

Abortion Rate Hits Record Low in America

The abortion rate in the U.S. has declined to an all-time low since the *Roe v. Wade* Supreme Court decision which legalized abortion across the country, according to a new study released on Wednesday.

Conducted by the Guttmacher Institute, the research found that the abortion rate declined to 14.6 abortions per 1,000 women among women aged 15 to 44 in 2014.

The number is a 14 percent decline from 2011, during which the rate was 16.9 abortions per 1,000 women.

The total number of abortions that took place across the country also fell below 1 million for the first time in 2013, according to Guttmacher. That year, 958,700 abortion procedures were conducted, and in 2014, the study found the total number fell even more to 926,190.

Abortion rates were also found to have declined in all regions of the country and in all states but six and the District of Columbia.

The number of abortion clinics also decreased between 2011 and 2014 by 17 percent, according to the study.

Different interpretations of the study results have emerged since they were published. The Guttmacher Institute, for instance, said that the decline in the abortion rate may be due to an increased use of contraceptives.

"The primary driver behind the decline was most likely improved contraceptive use, which leads to fewer unintended pregnancies," Megan Donovan, senior policy manager at Guttmacher Institute, told USA Today. "This is good news because it suggests women are increasingly able to access the resources they need to plan their families and avoid unintended pregnancy."



A Guttmacher Institute study released on January 18 found that the rate of abortions fell to an all-time low in 2014. (Photo: Pexels)

Meanwhile, pro-life advocates heralded the results as the fruits of campaigns to prevent abortions.

"The falling abortion number is due to the ceaseless advocacy and ministry of the pro-life community in neighborhoods all around this country," Russell Moore, president of the Southern Baptist Ethics & Religious Liberty Commission (ERLC), told Baptist Press. "The pro-life movement advances by calling out to consciences with the truth of what unborn human life is and matching that call with real ministry to women in crisis."

According to Guttmacher, state legislations against abortions may also have contributed to the decline. "The wave of abortion restrictions passed at the state level over the last five years could also have contributed to the decline by making it more difficult for women to access needed services in highly restrictive states," the study states.

The study also revealed other findings. Patients in their twenties made up more than half of those who had abortions in 2014, and 12 percent of patients were adolescents.

The Western and Southern regions of the U.S. saw the sharpest declines in abortion rates, both which saw a 16 percent decline. The Northeast and Midwest saw an 11 percent and a 9 percent decline, respectively.

Catholic Hospital Sued for Denying Gender Reassignment Surgery

A Catholic hospital is facing a lawsuit on claims that a doctor there refused to conduct a hysterectomy for a transgender patient.

The lawsuit was filed against St. Joseph's Regional Medical Center, located in Paterson, NJ on January 5 in federal court. Jionni Conforti (33), whose biological sex is female but identifies as a man, said that the head nurse initially said that a hysterectomy can be performed there, but that a doctor and the director of missions at the hospital said one week later that they would not be able to perform the procedure.

According to the lawsuit, Father Martin Rooney, the director of missions at St. Joseph's, emailed Conforti saying, "This is to follow up to your e-mail inquiring about scheduling a total hysterectomy here at St. Joseph's to remove all female parts based on the medical necessity for Gender Reassignment. This is to inform you that as a Catholic Hospital we would not be able to allow your surgeon to schedule this surgery here at St. Joseph's."

Though Conforti had the procedure done at a different hospital three months thereafter, he said he "felt betrayed," and "became deeply depressed," according to the lawsuit. He "also became, and remains, anxious about visiting either SJRMC's Paterson hospital or SJW — the two hospitals closest to his home — for medical care," the lawsuit continues.

However, some say the lawsuit represents a breach to the Catholic hospital's right to practice its religious freedom. Matt Sharp, a legal counsel from the Alliance Defending Freedom, told the Catholic News Agency that the lawsuit "involves whether a Catholic hospital can be compelled to perform a procedure that violates its sincerely-held religious beliefs."

"Every hospital and physician should be free to make sound moral and ethical decisions as to the best treatments for their patients," said Sharp. "There are serious questions about the long term results of so-called sex reassignment surgery. Whether based on their sincerely held religious beliefs or ethical considerations, hospitals and physicians should not be compelled to perform these procedures by legions of state or federal bureaucrats."

The lawsuit states that the plaintiff seeks monetary damages, and for the court to require the Catholic hospital to provide all medical procedures necessary for gender dysphoria-related care.

NASA, NOAA: 2016 Was the Hottest Year Recorded

The year 2016 marked the hottest temperatures on record for the third year in a row, according to analysts from two federal agencies on Wednesday.

Independent analyses conducted by NASA and the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NOAA) found that temperatures have increased to its highest last year. The NOAA found that the average temperature on land and ocean surfaces was 58.69 degrees Fahrenheit in 2016, which was 1.69 degrees above average, and the largest gap found since the NOAA kept record.

Meanwhile, NASA found that the earth's average surface temperature in 2016 increased approximately 2.0 degrees since the late 19th century.

"2016 is remarkably the third record year in a row in this series," Gavin Schmidt, the director of NASA's Goddard Institute for Space Studies (GISS), said in a statement. "We don't expect record years every year, but the ongoing long-term warming trend is clear."

According to reports, the two US agencies' findings were found to agree with those of other international agencies, such as the European Union's Copernicus Climate Change Service, which found that the earth's average surface temperature was 58.6 degrees Fahrenheit. Agencies in the UK and Japan also found similar results, as well as the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Deke Arndt from the NOAA told AP that these agencies' findings are "all singing the same song even if they are hitting different notes along the way. The pattern is very clear."

Scientists point to human-caused changes over the past decades as a major factor that led to increased temperatures.

NASA's statement on Wednesday said that the increase in the earth's average surface temperature is "a change driven largely by increased carbon dioxide and other human-made emissions into the atmosphere."

Meanwhile, Schmidt said that seeing another year with record-high temperatures in 2017 is "unlikely."

"Because we're right now starting this year with a very mild La Niña ... we expect that to give a small negative push to next year's temperature," Schmidt was quoted by Huffington Post as saying. "But because the long-term trends are so clear, it's still going to be a top-five year in our analysis. I'm pretty confident about that, but it's unlikely to be another record year."

Sunday Services: 9 AM & 11:15 AM
Children's Ministry: 9 AM & 11:15 AM
Youth Group Service: Sundays at 11:15 AM
Pastor Keith Park
Church of Southland
1380 S. Sanderson Ave, Anaheim, CA 92806
T. (714) 209-7349 / churchofsouthland.com

Sunday Services: 9 AM, 11 AM, and 2 PM
Youth Services:
Sundays at 11 AM, Fridays at 7:30 PM
Sunday School: Sundays at 11 AM
Pastors David Lee & Sung Hong
Cornerstone Church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www.cornerstonetv.com

Brea Campus Service Times: 9:30 AM, 11:30 AM
Irvine Campus Service Time: 10:30 AM
Pastor Steve Choi
Crossway Community Church
Brea: 695 Madison Way, Brea, CA 92821
Irvine: 100 Honors, Irvine, CA 92620
T. (714) 529-5551 / crossway-church.com

Sunday Services: 9 AM & 10:45 AM
Children's Ministry Services: 9 AM & 10:45 AM
Youth Services: Sundays at 9 AM, Wednesdays at 6:30 PM
College Services: Sundays at 10:45 AM
Pastor Tim Park
Evangelical Free Church Diamond Bar
3255 S. Diamond Bar Blvd, Diamond Bar, CA 91765
T. (909) 594-7604 / www.efreedb.org

EM Sunday Service: 12:00 PM
Children's & Youth Services: 10:30 AM
Friday Night Bible Study (Jr. High - Youg Adults): 7:30 PM
Pastor James Kwak
First Presbyterian Church of OC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1-2029 / www.oc1church.com

Sunday Service: 9:30 AM
Children's and Youth Services:
11:30 AM on Sundays, 8:00 PM on Fridays
Pastor Ronnie Park
Good Stewards Church
2701 S Woodgate Dr, West Covina, CA 91792
T. (626) 913-6611 / www. gsch.org

Sunday Services: 9 AM & 11 AM
Bible Studies: Wednesdays at 7 PM
Prayer Meetings: Tuesdays at 11 AM, Saturdays at 9 AM
Pastor Sam Koh
Hillside Church
2241 N. Eastern Ave, Los Angeles, CA 90032
T. (323) 909-9062 / www.hillsidela.org

Sunday Services: 9:45 AM
Pastor Phil Kim
The Home Church
19271 Colima Rd. Suite A/B,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384-1393 / thehomechurchrowland.com

Sunday Services: 11:30 AM
Pastor Henry Lee
Crossroads Church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www.crclafgc.com

Sunday Services: 9 AM & 11 AM
College Group Meetings:
Sundays at 12:30 PM, Fridays at 8 PM
Pastor Steve Chang
Living Hope Community Church
1215 W. Lambert Road, Brea, CA 92821
T. (562) 694-2100 / www.livinghopecc.org

Sunday Services: 10:30 AM
Children's and Youth Services: 10:30 AM, 12:15 PM
College Services: Sundays at 12:15 PM
Pastor Kiwon Suh
New Life Vision Church
4077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9
T. (323) 373-0110 / www.nlvc.org

Sunday Services:
8:30 AM, 9:45 AM & 11:15 AM
Pastor Paul Kim
Redeemer Presbyterian Church
1831 South El Camino Real Encinitas, CA 92024
T. (760) 753-2535 / www.redeemersd.org

Sunday Services: 1 PM
Youth Group Services:
Sundays at 11 PM, Thursdays at 7 PM
Pastor Daniel Han
Restore Fellowship
2525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
T. (213) 487-3920 / www.ladongsan.com

Broadway Campus Sunday Services:
9:45 AM, 11:15 AM, 12:45 PM
Jefferson Campus Sunday Services:
9:30 AM, 11:30 AM
Pastor Michael Lee
Young Nak Celebration Church
Broadway: 1721 North Broadway, LA, CA 90031
Jefferson: 150 W. Jefferson Blvd., LA, CA 90007
T. (323) 227-1414 / www. yncla.org

활성산소 제거?
해답은 수소수!

좋은 물을 마시면 우리의 건강이 좋아집니다

노화를 촉진하고 세포와 DNA를 공격하여 각종 질병을 일으키는 병들의 원인이 바로 활성산소(독성산소, Free Radicals)이며, 수소는 그런 활성산소와 결합하여, 우리 몸에서 부작용이 전혀 없는 물로 변환되어 우리 몸의 활성산소를 제거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수소의 역할
- 대표적 활성산소인 하이드록시 래디컬과 결합해서 몸에서 배출
- 체내의 염증을 제거하여 통증을 완화
- 미세분자상태로 체내의 모든 부분, 심지어 뇌까지 도달되어 활성산소를 제거

본 수소수기의 특징
1) 2중 역삼투압 방식에 의한 순수한 원수를 바탕으로 고농도(800~1,000ppb)의 수소수를 생성하며, 물의 성질은 우리 몸에 가장 적합한 약알카리 상태가 됩니다.
2) 대용량 필터를 사용하여, 깨끗한 물을 생산한 별도의 전해조에서 생산된 수소가스를 우리가 음용하는 물에 가압하는 첨단방식으로 즉시 물을 드실 수 있고 오랜기간을 사용해도 수소가스의 농도가 유지됩니다.



일본의 시타마대학교의 하타나 가주끼 박사의 연구에 의하면, 수소농도 1,000ppb의 경우에 베타카로틴 함량 기준으로, 위와 같은 양의 항산화 물질을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일반 항산화 물질은 들어갈 수 없는 뇌 속이나 깊은 장기의 미세조직까지도 수소는 도달될 수 있으며 도달된 수소는 활성산소들을 물로 변환시키므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프랑스 "루르드 샘물"
독 일 "노르데나우 샘물"
멕시코 "트라코테 샘물"
세계 3대 샘물의 비밀

기적의 수소수를
가정에서 드세요!

수소수 무료 시음!
깨끗하고 건강한 물 드시러 오세요.
안국의 퓨리아플 PLUS 에서
생산된 우수한 제품입니다.

CTP 100
$1,390 +Tax
- 1년 필터교환 무상
- 냉, 온수 정수기

가장 강력한 항산화 물질
GSPH 100
$2,990 +Tax
- 1년 필터교환 무상
- 냉, 온수 수소수기

수소 보틀(1병) 구입시
에네스티 핸드크림 2개 Free
(12불 상당 사은품)
공짜



▪환원력이 뛰어난 수소가 생성되는 보틀

[제품특징]
*스테인레스 필터를 통해 잎차, 티백, 천연차 등 다양한 음료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적정사용온도 : 친환경소재와 제품 변형 방지를 위해 –20도~100도 사이에서 사용을 권합니다.
*심플한 디자인, 친환경 트라이탄 소재로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높은 휴대성으로 여행, 스포츠, 레저 등은 물론 일상에서도 편리합니다.

1병 $65.00 +TAX

특별 이벤트

PRO-Z USA에서는 그동안 여러분들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특별 이벤트를 실시하오니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소중한 분들에게 선물하세요



한병 더
절호의 찬스
지금 구매하시면!
3병 +(1병 Free)
$267 +Tax

*가까운 약국이나 건강식품점에서 구입하세요!

프로지 골드
PRO-Z GOLD

HIGH QUALITY 100% 천연성분

당뇨! 당뇨는 원인치료가 해답입니다!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이 강화된 **PRO-Z GOLD**



당뇨병의 원인
아연은 우리 몸의 대사작용을 하는 필수 미네랄로 인슐린의 저장 및 분비에 필수적인 성분입니다.
아연이 부족하면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분비 기능이 저하되어 당뇨병을 유발하게 됩니다.
인슐린의 저항성을 낮추어 분비된 인슐린이 제 기능을 하도록 도와줍니다.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과 식후 혈당 상승 억제 기능이 강화되었습니다.

BAJA CALIFORNIA NATURAL SEA SALT

세계 최대 규모의 천일염 생산지

바하 캘리포니아 소금



바하 캘리포니아 소금의 특징
- 최적의 생산조건에서 생성된 순도 99.70%의 미네랄소금
- 중금속 0.001% 청정 천일염
- 간수 제거된 건강 천일염
- 다년간 생산과정을 거친 최상급 천일염
- KA-Kosher 인증 천일염

바하 캘리포니아(BAJA CALIFORNIA) 염전의 특징
- 청정해역에 위치한 깨끗한 구역
- 적은 강수량 (50mm/년)
- 강한 일조량 (2M/년)
- 년 평균 기온 (18~22°C)
- 강한 바람

성분분석 및 인증서
바하캘리포니아 천일염은 기존의 호주 수입 천일염 및 국내 천일염과 비교하여 천일염의 기능과 소비자의 선호도 또한 우수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20 1봉지

www.bajacaliforniaseasalt.com



UNESCO's El Vizcaino Biosphere Reserve

건강한 피부의 시작
에네스티 화장품
enestl



구입 문의 **213. 434. 1170**

www.prozusa.com / prozusa1@gmail.com
621 S. Virgil Ave. Suite 100, LA, CA 90005

PRO-Z USA Inc.
프로지 유에스에이